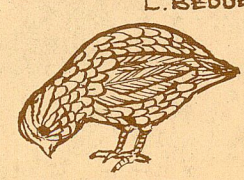


L. REDDES



성도의 벗 6

1973

복음과 동물 - 36페이지를 볼것.



영감의 메시지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우리는 온 세상 방방곡곡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각각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며, 영국의 성도들이 노래한 뜻에 좇아 사시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니,
마음과 힘을 다해 일해야 하리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두려움도 없으려
이곳에서 살며
이곳에서 봉사하리라”

또한 온 세상에 사시는 성도들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족 기도를 잊지 마시며 가족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하며 사랑이 운동 차고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파숫군 여러분, “교회를 돌보며, ... 저들을 강화시켜야”(교성 20:53) 하는 거룩한 소임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하늘에서 전달된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행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프로그램은 맹렬한 기세로 이 세상을 휘몰아 치는 간악함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활동에 참여토록 도와 주셔서 저들이 그 활동의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권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명에 관하여 계속 해서 증거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하신 친구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시는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복음의 의식과 율법을 지키므로서 구원 받는다”(신약개조 3)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께 엄숙히 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식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열쇠를 가진 권능을 위임받은 주의 증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순서

고든 비 힝클리	2	해롤드 비 리 대관장
휴 비 브라운	11	부대관장 엔 엘돈 태너
스펜서 더블류 킴볼	18	부대관장 매리온 지 롬니
매리 엘 러스크	21	드보라
비버리 존스톤	23	종이 인형
데오돌 에이 터틀	24	친구가 친구에게-무거운 짐
린다 알 군드리	26	용감한 비행사
비버리 존스톤	28	쌍둥이 광대찾기
조지 듀런트	33	미로의 중간
비 시 프레임	34	가정 복음 교사에게 묻고싶은 질문 몇가지
제랄드 이 존스	36	복음과 동물
	40	성경을 상고하다
로버트 제이 매튜	42	금식에 관하여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45	물론 유우머
	46	지방소식

성도의 벗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6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95호

편집겸 발행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1973년 6월호

벗

제9권 제6호

- 대관장단
 - 해롤드 비 리 고문 위원회
 - 엔 엘톤 태너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교내 연락 책임자
 - 매리온 지 롬니 존 이 카, 번역 및 배부 책임자
 - 도일 엘 그린, 교회 잡지 책임자
 - 다니엘 에치 루드로우, 교육 자료 책임자
- 십이사도
 - 스펜서 더블류 킴볼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마크 이 피터슨
 -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 리그랜드 리차즈
 - 휴 비 브라운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고든 비 힝클리
 - 토마스 에스 몬슨
 - 보이드 케이 패커
 - 마빈 제이 애쉬튼
 - 브르스 알 맥클리

정 가: 1권 10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5불
 항공7불

위인의 생애

위대성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세상은 자주 명예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단순한 인기로 이 위대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대함의 참 가치는 영혼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이 영향을 준 삶, 그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인의 생애는 근엄과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진리의 탐구와 자기 향상과 자제의 삶인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명예를 탐하지 않으며, 명예가 저절로 저들을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번 달 성도의 벗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에 계신 위대한 지도자 세분의—해롤드 비 리, 엔 엘톤 태너, 매리온 지 롬니—전기를 실기로 했다. 이 전기의 작가는 현재 총 관리 역원을 맡고 계신 분들이며, 이 세분과 각각 영적으로도 가까운 친교를 맺고 있는 분이다.

리 대관장님의 삶과 태너 부대관장님, 롬니 부대관장님의 삶에는 여러가지로 재미있는 공통점이 발견 된다. 이 세분은 모두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출발하셨다. 이 분들은 가난의 의미를 잘 아시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투쟁의 뜻을 잘 알고 계시다. 이 분들은 열심히 일하셨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봉사하셨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분들이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셨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명예를 탐내지 않았으나 명예가 이 분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분이 모두 개척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강조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겠다. 제1대 말일성도들 가운데는 비범한 영적인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분이 계시며 뛰어난 개척자들의 후손 가운데는 엉뚱한 길로 떨어져 나간 분도 허다한 것이다. 문제는 개인이 각각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얼마큼이나 의지하며 기쁘게 따르려 하느냐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독자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로 이 시대를 위하여 세우신 위대한 세분의 전기를 비상한 관심을 갖고 흥미있게 읽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 세분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다.

표지 설명

이달의 표지는 특별히 성도의 벗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라일 베데스는 밭을 걷고 있는 농부가 새 동우리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소재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하는 생애에 대한 경외심을 묘사하였다. 의

36페이지 “복음과 동물”기사 참조

작은 아이다호로부터 최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임명된 거룩한 소명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다난한 길이었다.
그길은 소망과 열망, 갈등과 슬픔,
피나는 노력으로 쟁취한
성공과 다듬어지고 정리된
신앙으로 채워진 길이다.



1973년 6월호

대관장 해롤드 비 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정원회

세살 반된 해롤드 비 리



교회의 대관장이신 해롤드 비 리의 이야기는 간단히 몇 줄의 이야기로 끝낼 수도 있다: 1899년 3월 28일 아이다호주 크리프톤에서 사무엘 메리온과 루이사 에밀린 빙함 리의 여섯 자녀 중 하나로 탄생, 지방 국민학교를 거쳐 프레스톤 근처의 오베이다 아카데미, 아이다호주 알비온에 있는 주립 사범학교, 유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미 17살 때 교사로의 첫발을 내 디었으며 18살 때에는 교장으로, 후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지역의 두 학교의 교장으로 봉직, 1923년 11월 14일에 웬 프신다 태너와 결혼, 1962년 9월 24일 아내와 사별, 1963년 6월 17일에 후레다 요안 쟈센과 재혼.

1928-33년에는 화운데이손 인쇄 주식회사의 경영주였고 1933-37년에는 솔트레이크시의 대의원으로서 교회 복지위원회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었음. 1941년 4월 6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임명. 1970년 1월 23일 교회 대관장의 제일 보좌이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임명. 1972년 7월 7일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 성별됨.

이상이 그분 생애의 전말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값진 것이다.

하나의 마을, 아니 하나의 시로 볼 때 크리프톤은 아주 작은, 대도시에는 좀 거리가 먼 외딴 마을이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이 마을은 이 교회의 11대 대관장이 출생한 장소로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리 대관장의 부친이신 사무엘 메리온은 남부 네바다주의 파나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다가 크리프톤으로 옮겨 왔다. 사무엘의 모친(리 대관장님의 조모)은 사무엘이 여덟 살 때에 세상을 떠나셨으며 그때에 사무엘은 어른의 반지가 손목을 지나 팔뚝에 까지 올라갈 정도로 작고 허약했다. 처음에는 안약을 넣는 조그만 대롱으로 먹을 것을 공급했다. 그의 모친의 친 누이가 크리프톤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열 여덟 살 때에 그는 이모와 함께 살기 위해서 크리프톤으로 옮겨 온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검은 눈에 검은 머리카락의 소녀 루이사 빙함을 만난 것이다. 이들은 로간 신전에서 결혼을 했다. 이들이 살며 여섯 자녀를 기른 곳은 먼지가 풀석 풀석 이는 곳으로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십리쯤 떨어진 곳이었으며 이곳은 여름에는 먼지, 겨울에는 눈산, 그리고 봄, 가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질퍽거리는 곳이었다. 제일 가까운 병원이라는 곳이 몇 십리쯤 떨어진 곳이었으며 가까이는 의사도 없었다. 헨드슨가의 "수산 아줌마"가 산파 노릇을 해주곤 했다.

이곳에서 마을의 다른 아이들 틈에 섞여 해롤드는 맨발로 어린 시절을 살았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더틀리 연못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했다. 부친은 감독단에서, 모친은 주일학교와 상호 향상회에서 직책을 맡고 계셨다. 해롤드 비 리가 칠패를 받은 곳은 그가 어렸을 때 수영을 하던 곳과 비슷한 비비 농장의 연못이었다.

그 시절엔 돈이 아주 귀했다. 농장의 수확이 상당했어도 그것으로 구할 수 있는 감자나 곡물은 극히 소량이었다.



부친은 가족 부양의 부족액을 하천 작업이나 우물 굴착 작업, 추수 작업등으로 배꾸어 나갔다. 그랬음에도 리가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줄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충분한 오락의 기회를 허가 받고 있었다. 가정의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피아노였다. 피아노의 조율을 할 수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아줌마가 그에게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쳤다.

특히 해롤드는 피아노에 아주 열중했다. 어렸을 적에 갖게 된 음악의 소양으로 그가 후에 교회 음악 위원회의 회장으로로서의 봉사를 하게 된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엄마가 모는 말마차로 십리길이나 되는 학교엔 다녔다. 그 말마차는 일월의 삭풍이 얼어 붙은 지면을 휩쓸 때 피난처가 되어 주었고 길바닥이 뒤집혀 온통 흙탕이 될 때는 참으로 문제 거리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크리프톤의 생활이었다.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다 있었읍니다.”

국민학교 과정을 끝내고는 이집 형제들은 집에서 약 칠십리나 떨어진 프레스톤이라는 곳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오네이다 아카데미에 다니기 위하여 집을 떠났다. 당시 해롤드는 열 세살이었으며 이곳에서 처음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만난 것이다. 그후 그는 아이다호주의 프레스톤 반대쪽에 있는 엘비온 주립학교로 적을 옮겼다. 이곳에서 십칠세의 해롤드 비 리는 교사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날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영광과 보람을 안겨 준 날이었다. 지방 교육 위원회에서는 크리프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웨스턴과 데이튼 중간에 위치한 작은 실버 스타 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발령을 내려 주었다.

그는 주말이면 말을 타고 사십리 길을 여행해야 했다. 이곳에서의 근무는 사실 더 큰 책임을 맡기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했다. 다음 해에 교육 위원회에서는 네 학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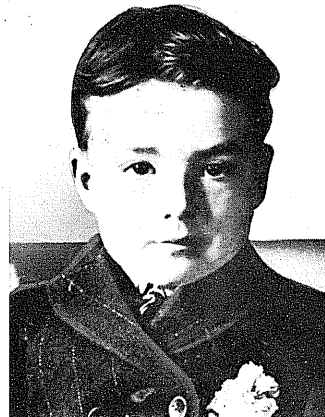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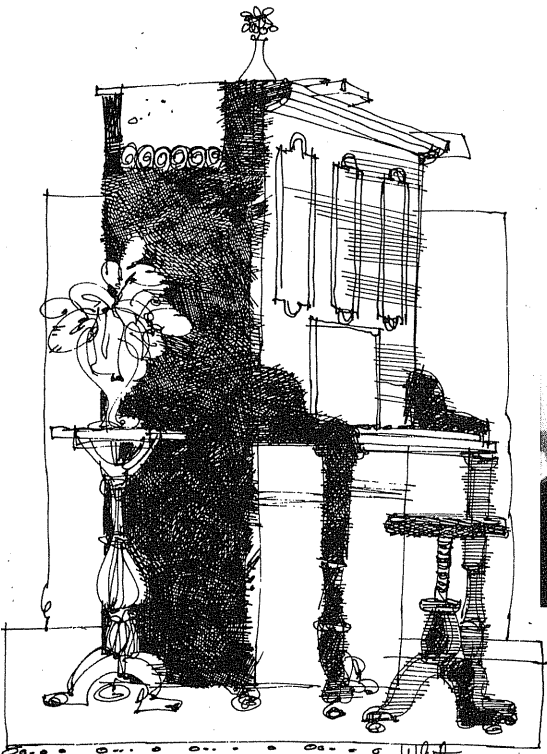
규모인 옥스포드 학교의 교장으로 그를 전근 발령했다. 십팔세의 소년으로서의 역량을 다 경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는 이십리 길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개이거나 호리거나 말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 뛰어난 음악의 재질과 농구 기술로 그는 그 지방 활동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당시에 해롤드의 부친은 교회의 감독이었고 후에 세상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계획의 태동을 해롤드는 처음으로 엿보게 된 것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감독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리 감독은 상점을 경영했으며 식료품은 자영 제조소에서 가져다 팔았다. 밤에는 그가 네 시간 쯤 잠을 잔다고 가족들은 알고 있었고 그후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 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일로 부끄러움을 받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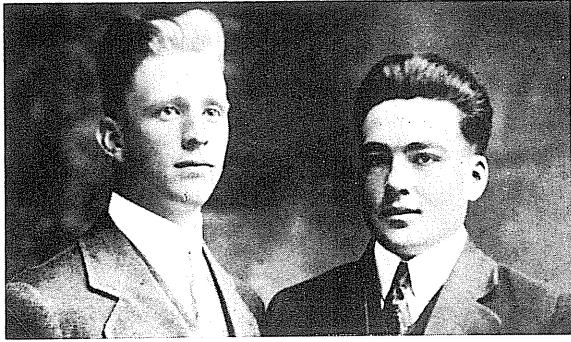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감독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추천해야 하는 책임도 맡고 있었다. 해롤드가 교직 생활 사년을 끝냈을 때, 그러니까 그가 21세가 되던 해에 히버레이 그랜트 대관장님으로부터 웨스턴 스테이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교회 선교사업과의 밀봉된 서류철 속에는 당시 대관장단에 보내는 리 장로에 관한 보고서가 끼여 있다. 1922년 12월 30일자로 정리된 이 보고서에는 존 엠 나이트 선교부장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이 서류에 보면 해롤드 비 리 장로의 임기는 1920년 11월 11일로부터 1922년 12월 18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다:

“자질”—웅변가로서—아주 훌륭함. 관리역원으로서— 훌륭함, 복음에 관한 지식은 갖추었는가?—‘아주 훌륭함.’ 열성적인가?—극히 열성적임. 분별력이 있고 남에게 좋은

5세때의 리 대관장(하단) 아이다호의 옥스포드 국민학교의 교장이었던 19세 때 (좌측) (5페이지 상단) 1915-16년 오메이다 스테이크 아카데미 토론 상대자 스파델 허프(우측)





영향력을 전하는가? —그렇습니다. 비고 : 리 장로는 1921년 8월 8일로부터 1922년 12월 18일까지 덴버 대회를 훌륭하게 관리했으며, 뛰어난 선교사업.

그 당시 그가 일하던 선교부에는 솔트레이크 출신인 윌루신다 배너라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 동료들 간에 영특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성구 암송력을 가진 자매로 정평이 나 있었다. 리 장로가 임기를 마친 후에 그는 잠시 크리프톤에 들렀다가 곧 솔트레이크로 돌아가 선교사 시절에 늘 칭찬해 오던 그녀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귀환 약 11개월 후에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사이에서 헬렌과 마린이라는 귀여운 두 딸이 태어났다. 리의 가정은 곧 그 근처의 젊은이들이 집합하는 장소가 되었다. 리 자매의 온화한 성품과 어려운 문제를 정리해 주는 태도는 곧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한번은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두 사람에게 그녀는 “오직 정당하겠다는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친절로 대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라고 타일러 잠잠케 한 일이 있다.

마린, 곧 어네스트 제이 월킨스 부인은 1966년에 그의

부친이 교회의 사무로 하와이에 여행하고 계신 동안에 세상을 떠나셨다. 헬렌 곧 브렌트 엘 고트스 여사는 다년칸와드 상호부조회의 회장으로 봉직했으며 교사로서 어린 자녀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다.

나이 불과 18세에 두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자질과 품성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거듭 확인되었다. 유타 대학에서 수업한 다음 그는 솔트레이크 지역의 첫 번째 위터 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우드로우 윌슨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도시관 출입증 판매를 포함한 하기 근무와 1928년 화운 메이션 출판사에서 하기 근무로 그는 유타주,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내에서 일약 경영 관리인으로의 기반도 굳히게 되었다.

1932년 솔트레이크시의 대의원이 사망하자 바로 그는 솔트레이크시의 대의원으로 지명되었고 그뒤로 재선되어 임기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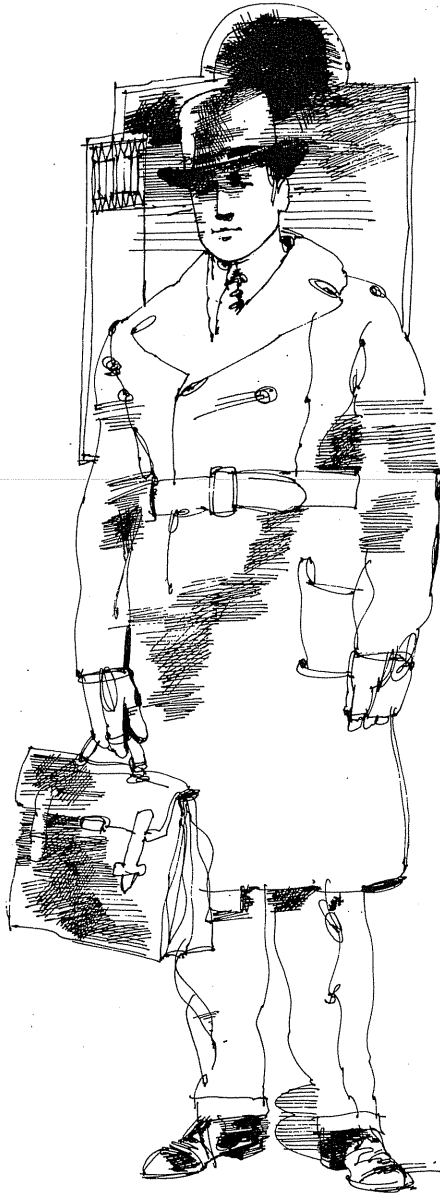
결혼후 그는 파이오니오 스테이크에 살면서 한번도 교회 직책을 맡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그후 1929년 그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가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다. 그때에 그의 나이는 31세로 교회 내에서 가장 연소한 스테이크 부장이었다.

경제 불황이 극심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어 모든 경제 기능이 마비되고 있었으므로 은행은 모두 문을 닫게 되었고 예금된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었다. 여기 저기서 실업자가 생겨 났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동안 몸 담았던 직장을 떠나야 했으며 자살을 한 사람도 많았다. 영세 노동자 급식소와 구호 식량 배급소가 생겨 났다. 실의와 비참함에 사람들의 모습은 날로 어두워 졌다. 파이오니오 스테이크만 하더라도 소속 회원의 약 반수가 실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젊은 스테이크 부장에게 제시된 문제는 어떻



“우리는 돈으로 살수없는
것 모두를 갖고 있었다.”





전 프로그램이라고 칭하신 바로 그러한 사업으로 전개시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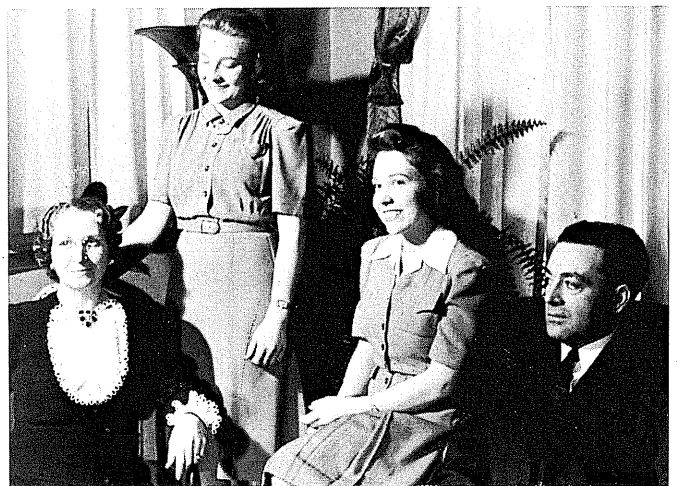
파이오니오 스테이크의 젊은 지도자인 해롤드 비 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던 때에 심한 풍랑을 헤치며 막 항해를 시작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길잡이로 부름을 받았다. 문제는 태산 같았다. 농지를 정리해서 그곳에서 식료품을 생산하고 제조 시설을 갖추며 보관시설까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 거리였다. 그러나 문제 중의 문제는 구호 대책은 정부가 지역적으로 일괄 처리해야 하며 교회의 시도는 못 마땅한 것이라는 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완강한 태도였다.

그러나 기도와 설득과 땀과 눈물과 그가 예언자로 모시고 있는 분의 축복과 또 시온의 스테이크까지의 많은 왕래로 마침내 프로그램은 기반을 굳히게 되었고 차차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방대한 복지 프로그램의 기둥은—이를테면 농지의 효율 활용, 농산물 처리, 탈곡 작업 및 제분 작업 기타 거의 미국 전역에 소개된 사업—모두 그러한 초기의 노력과 영감적인 사업 시행에 힘입은 것이다. 정부가 시도 하는 구호 사업이 여러 가지로 방해의 벽에 부딪쳐야 하는데 반해서 교회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남세 의무자들은 교회가 벌리는 프

게 보면 너무도 벅찬 그런 문제였다. 아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한때는 자신 만만하게 살던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려 실의에 찬 모습을 하게 된 것을 보고는 울기도 했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식량 및 기타 구호품을 창고에 모았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창고 제도를 세워야 하겠다는 영감이 떠올라 오르게 된 것이다. 곧 사업을 벌렸다. 그 지역의 생활을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곧 낡은 사무실 건물을 헐어 냈다. 그곳에 쓰였던 자료는 지역민들의 사교를 위한 시설이 될 스테이크 체육관을 짓는데 사용했다.

다른 여러 스테이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착수했으며 1936년 4월에는 현재 우리들에게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교회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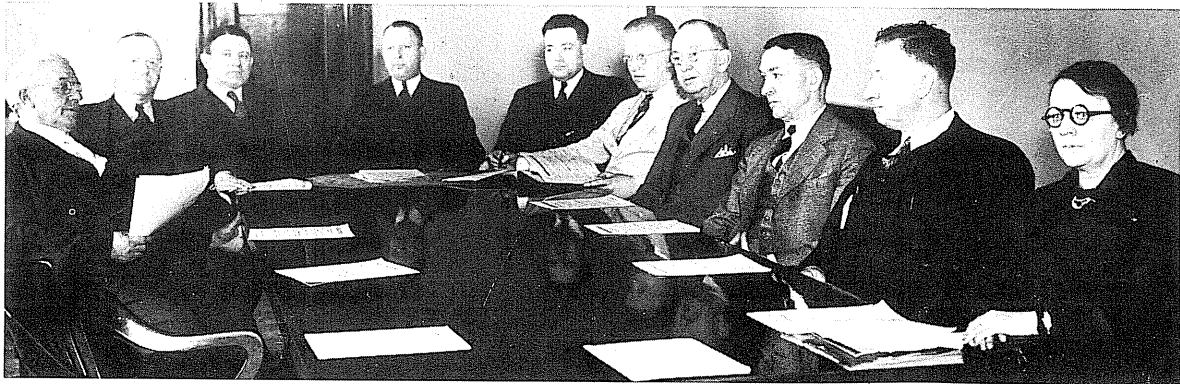
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아마 수백만 불의 혜택을 입었으리라고 믿는다. 수천명의 남녀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게 되었으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일자리를 얻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케이트의 정죄와 암함의 비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체면과 자존심은 보호될 수 있었다.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식품제조 과정에 참가한 수 많은 사람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얻는 기쁨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폭넓은 응용 범위와 훌륭한 결과를 지켜 보면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프로그램이 제시의 영으로 인도된 것임을 확신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께서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첫번 관리자이셨으며 또 오랫동안 복지 위원장으로 일하신 만큼 영감적인 방향 제시를 하신 공로를 리 대관장께 돌려야 할 것 같다. 그렇더라도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그분의 결백성 때문에 모두를 주님의 공로로 돌리실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도 모른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중의 능력을 키워주시면서 틀림없이 리 대관장님의 헌신과 신앙을 인정하셨을 것이다.

리 대관장님의 제이 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이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초창기에 이미 리 대관장님과 가까

운 친구였고 또 리 대관장님을 제승하여 복지 위원회의 관리자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흥미롭다. 물론 두 분은 그 훨씬 전에 서로 처음 대면했으며 두 분이 처음 만난 날 두 분은 똑같이 작업복을 걸치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단짝이 되어 일하신 것이다.

이제 한 세기의 삼분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두 분중한 분은 최근에 주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다른 한 분을 준비시키시었는지를 똑바로 느끼시는 것이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한창 곤경에 빠져 있던 그 환난의 시간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시험을 겪



6 페이지. 1921년 웨스턴 스테이크에서의 선교사 시절. 윗 사진 1933년 리 대관장의 지도로 건립되어 1954년 해롤드 비리 홀로 재 명명된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체육관. 1941년의 리 대관장 가족.-훤 리 자매 헨렌 (고우즈), 모린 (윌킨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 대관장.

7 페이지 상단. 교회 복지 위원회 초대 책임자로 일하던 1938년 위원회 고문들과 함께 -앨버트 이 보우엔, 벨빈 제이 벨라드, 존 에이 윌소 장로와 헨리 모일 형제 (뒷열)

중앙. 1937년의 교회 복지 위원회-벨빈 제이 벨라드, 로버트 엘 주드, 헨리 모일, 윌리엄 이 라이버그, 해롤드 비리, 메오돌 비브라이, 캠블 엘 브라운, 스트링검 에이 스티븐스, 마빈 오 애쉬튼 감독. 케이트 바커.

하단·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과 리형제. 1934년 당시 서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부장 재직 당시 “아버지와 아들” 활동에서.



성도의 빛 1973년 6월호

으시고 리 장로님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에 의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고 1941년 4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되었다.

그 때 사도로 임명되던 때에 존 에이 윗소 장로님은 새로 부름을 받는 리 장로에 대하여 “그는 주를 믿는 신앙이 돈독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며 국가와 교회에 충실하였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버렸으며 예지와 정력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분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는 능력을 타고난 분이다. 그가 도움을 구하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되는 도움을 주사 그를 능하게 하실 것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므로서 이제까지 그가 알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1941년 5월초 임프 르브먼트 이라 288페이지)

이 말씀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는 사실대로의 말씀이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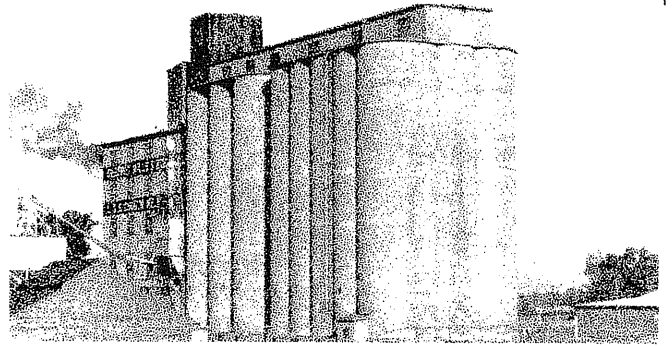
그의 지난 삼십 일년 동안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특별한 증인의 자격으로 전해야 하는 사도에 대한 신뢰와 의지로 일관된다.

사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대관장단의 지시대로 온 세상을 여행하며 그의 거침없는 음성을 높여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의 거룩한 사명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을 자주 인용하였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고전 18 : 8)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메시지에는 불명확한 것이 없다고는 없다. 한번 마음에 전달된 확신과 믿음으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온 세상의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수십 나라의 언어로 통역이 되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선교사들은 보다 부지런히 일하라는 격려를 받았고 교회 회원들은 복음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게 되었으며 구도자들은 일단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큰 충동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몸을 도사려 아낀 일도 없고 건강의 장애가 있을 때라도 부지런히 바쁜 스케줄의 일정을 쫓아 움직였다. 그가 여러달 동안 고통을 겪은 일에 관하여 가까운 몇몇은 잘 알고 있었다. 다행하게도 그의 그러한 증세는 치유되었고 현재는 칠십 삼세라는 고령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그러한 병력은 남의 고통을 예민하게 느끼고 이해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가깝게 또 멀게 여행하며 성도들을 축복하



위.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초창기 건물, 메지렛 밀스 앤드 엘리베이터즈.

1. 존 에이 윗소(1872—1952) 노르웨이 출생 1921년 3월 17일에 사도로 성임됨.



William Whitaker

1914년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과 함께



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주님의 종이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하여 행사한 기적적인 신권의 능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간증을 전하였다.

그는 또한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갖는 고독과 공포와 시련에도 자상한 태도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며

“그는 주를 믿는 신앙이 돈독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며
 국가와 교회에 충실하였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버렸으며
 예지와 정력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분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는
 능력을 타고난 분이다.
 그가 도움을 구하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되는 도움을 주사
 그를 능하게 하실 것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므로서 이제까지 그가
 알았던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성도의 빛 1973년 6월호

세계 제2차 대전이나, 한국 전쟁, 기타 아세아 지역에서의 전쟁 때에는 직접 교회의 군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군 복무중인 회원들에게 교회가 온전한 프로그램을 허가해 주어야 하며 또 그러한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관리 역원인 여러 형제들에게 늘 역설했고, 저들에게도 온갖 기회와 축복이 주어져야 한다고 부언했다. 그는 군 복무중인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대양 육대주를 돌았다. 1955년에는 군복을 입고 도처에 군대 막사가 설치된 한국을 방문하여 슬픔과 비통에 잠긴 성도들을 위로하셨다. 그때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온화함과 다정다감함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같은 간증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저들을 위로하고 일깨워줌으로써 암담한 구덩이로 전락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구하셨다.

그는 고난을 겪는 자를 위로하셨다. 그는 체험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슬픔을 배워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생애의 동반자를 잃은 것은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솔트레이크를 떠나 있었던 때였다. 임종의 소식을 듣고 한 밤중에 불원 친리 아내 곁으로 달려왔으나 아내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고난의 시절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서 그녀의 임종을 지켜 본 이들은 해롤드 비리가 걸어야 했던 슬픔의 깊이를 다소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1962년이였다. 1966년에는 마침 리 장로가 교회의 일로 하와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그의 사랑하는 딸 마린이 자녀 넷을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체험하면서 그는 남이 걸머진 짐의 무게를 자기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자질을 더욱 철저하게 정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은 그에게서 깊은 이해와 우정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들의 그러한 신앙의 단련은 저들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1963년에는 프레다 조안 켄슨과 결혼했으며 그후 부인은 여러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 주부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합당하게 받은 그녀는 현재 가장 훌륭한 가정에 살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개인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둔 분이다.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은 위에다 교편 생활을 했고 솔트레이크 지역의 요르단 교구의 초등 교육 책임자로 일하면서 관리 책임자로서의 체험도 쌓았다. 그녀는 또 초등학교 본부 임원으로도 봉직한 바 있다. 그녀가 주부가 된 가정은 남편에게는 화평의 처소요 그곳을 한번 방문할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는 온화함과 따뜻한 친절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되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도 리 장로의 탁월한 교회 관리 능력과 지식을 인정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그를 교회 협의 위원회 회장으로 임명하시어 교회의 온갖 프로그램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여러 해를 두고 안내와 설명의 이야기기를 싫증이 나도록 되풀이 해야 했으며 각 조직과 기구의 가르침의 요약도 그렇게 전해야 했다. 그의 진두 지휘아래 막대한 노력이 동원 되었으며 전반적인 교회 활동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회원간의 영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협의회의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 다시 입증되었다. 그의 노력과 작업은 부단히 진행되었으며 그의 목표는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서거하시자 조셉 필딩 스미스가 대관장의 자리를 계승했으며 이때에 리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되었고 스미스 대관장의 제일 보좌로 임명되었다. 그가 맡았던 제반 업무는 또 다시 그의 총 지휘 아래 계속 진행되었다. 교회 전반을 통하여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돌아갔다. 감독 훈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 범 세계적 인 선교사업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강조되어 진행되는 동안에 그의 탁월한 관리 능력은 다른 면에서도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미국 적십자 관리 임원의 일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미국 이퀴타블 생명 보험회사의 전무로 추대되었고 유니온 패시픽 철도 및 몇몇 유수한 기업의 전무이사로 초빙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에서 그는 정부 고위 인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교육 및 사업, 기타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도 친분을 갖게 되었다. 그와 가까운 자리에서 친교를 나누던 친구들은 그의 바른 판단력과 그의 친화력을 높이 평가했다. 유타주에 위치한 주요 삼개 대학—브리검 영 대학, 유타 대학, 유타 주립 대학—에서는 모두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 했다. 세계의 여러 교육자는 그를 이해 깊



은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이 불과 열 일곱에 공립 학교 교단에 서서 교편을 잡기 시작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전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1972년 7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신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의 마음에는 과연 누가 대관장의 자리를 계승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들은 1972년 7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솔트레이크 신전 성회소에 자리를 함께 했다. 조용하고 거룩한 그 장소에서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영의 속삭임을 간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한가지로 속삭이는 영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택함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익히며 삼십 일년 동안이나 사도로서 닦이고 단련된 해롤드 비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요 계시자 및 선견자, 선지자로 임명된 것이다. 참석한 전원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으며 그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부름을 주신 주님께로 기쁨부음을 받은 중으로서 성임된 것이다.

은 세상에 흠어진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의 지지를 받으시고 이제 그는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관할 대제사로 일하시게 된 것이다. [圖]



위. 집에서 리 대관장과 프레다 조안 리 자매 상우.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과 리 대관장.



부대관장 엔 엘돈 테너

고결한 인품의 지도자

휴 비 브라운
십이사도 정원회



1973년 6월호

테너 부대관장님은 교회 내의 인사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계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의 직책을 맡기시도록 특별히 훈련시키신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우리가 평범한 생에서 출발한 그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서 발전해온 모습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의 지난 행적 가운데는 장차 이룰 위대성의 전조가 엿보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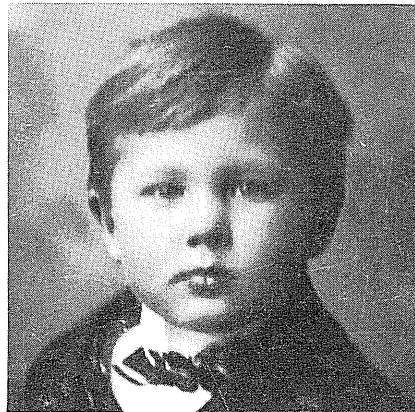
엘돈은 1898년 5월 9일에 나단 윌리엄 테너와 새라 에드나 브라운 테너와의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었다. 이들은 원래 유타에 살던 사람들이었으나 포장 마차를 타고 캐나다로 이주해간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집은 카드스톤에서 약 16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언덕 밑에 통나무로 엮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다. 그러나 엘돈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모친은 첫번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솔트레이크에 사는 그녀의 모친에게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때 나는 14살 먹은 소년이었다. 엘리스 슈프 박사님에게로 사람을 보냈지만 도착은 자꾸만 지연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말이나 풀랑말에 교통수단의 거의 모두를 맡기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나의 모친은 내게 직접 일을 처리하도록 분부하시고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날 영혼을 맞을 준비를

성도의 빛 1973년 6월호

서두르셨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수고를 덜어주시기라도 하듯 슈프박사님이 마침 어린 아이 분만 시간에 대어서 도착하셨다. 내가 엘돈의 첫번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출생을 알리는 고고성이었다. 일손이 모자라던 돕겠다고 서성대고 있는 내게 처음으로 들려온 소리였다. 그 이후로 그와 나 사이에는 두터운 유대가 계속되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주님의 약속을 받은 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엘돈의 소년 시절은 행복한 시절이었으나 그에게는 이행해야 할 많은 임무가 주어졌었다. 그 집안 여덟 자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는 어린 동생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4세 때의 엔 엘돈 테너

가 자인하듯 평범한 소년으로서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감독인 그의 부친이 한번은 여러 시간 동안 집을 비운 일이 있었고 집을 비우게 된 아버지는 그에게 그가 집을 떠나있는 동안 이행해야 할 일을 분부하셨던 것이다.

부친이 집을 떠나시자 몇몇 소년들은 전초 골짜기로 송아지를 타고 달리는 것이 재미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놀이에 열중해서 아버지가 다시 집에 돌아 오시도록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그들을 꾸짖는 대신 엘돈을 옆에 세우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의 눈을 찬찬히 응시하면서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는 엘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야야, 나는 그래도 너에게 맡기면 될 줄 알았어.” 그것으로 벌은 충분했다.

그는 그의 부친이 다시는 그와 같은 꾸지람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겠다고 굳게 작정했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덕스러운 것인가를 배웠고 또한 달성하기 힘들겠다고 여겨지는 일을 달성하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배웠다. 그는 어린 소년으로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를 몰아 곡물을 탈 곡기까지 날라야했고 그리고 여러번

이른 눈보라가 치는 속에서 그런 일을 수행해야 했다. 그는 농장에서 고된 일의 가치를 배웠고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왔다.

그가 열다섯살 때 일어났던 일이 그의 성품의 단면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말을 타고 소떼를 몰다가 말에서 떨어졌던 것이다. 땅바닥에서 벌떡 일어선 그는 왼쪽손 손가락 세개가 중간에서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가운데 손가락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살이 찢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그의 손가락을 바로 잡은 다음 손등으로 제쳐진 그의 손가락을 정상위치로 움켜잡고 다시 말에 오른 다음 의사에게로 갔던 것이다. 의사는 소년의 상처를 보고 놀랐다. 그러나 뼈는 모두 정확하게 제 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의사는 그저 찢어진 살갓을 꿰매주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이같이 않게 충실하게 수행했다. 한번은 온가족이 천연두로 고생을 했던 일이 있었다. 그만 성한 몸으로 남아서 온 식구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틀 밤 사흘 낮을 그는 한잠 자지 못하고 아픈 식구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때만해도 이 천연두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졌던 지라 감히 이웃은 그곳에 와서 도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학교 수업마저 추수라든지 기타 농장일로 해서 방해를 받곤 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부모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애트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중학교 삼학년 과정을 끝냈다. 그리고 레이몬드 에 있는 나이트 아카데미에 적을 두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고등학교 일학년과 이학년까지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켈거리 보통학교에서 육개월 정규과정을 끝냈고 그곳에 있는 동안 푸줏간 일과 식료품 가게일을 도우면서 생계비를 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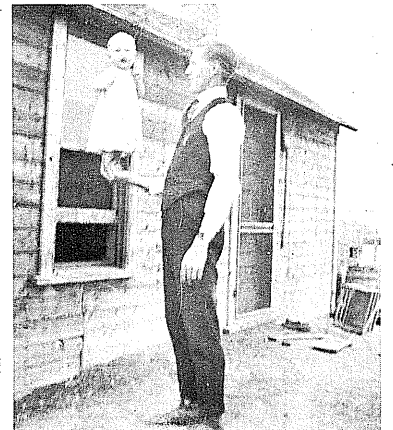
1919년 2월 그는 두 직장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 중 한 곳은 힐 스프링의 직장이었는데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나 다른 한곳은 비록 거리는 멀었으나 급료는 훨씬 많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울질을 다시 해야했고 마침내 힐 스프링에 있는 교실 셋밖에 없는 학교의 교장 겸 교사의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힐 스프링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그가 기도로 간구하며 꿈꾸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는 갈색 눈을 한 새라 이사벨라 메릴리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교사와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이들은 1919년 12월 20일에 결혼했고 그후 1923년에 헌납된 앨버타 신전에서 다시 영원한 인봉 의식을 가진 것이다.

그는 첫해에는 중학교 일학년과 이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다. 힐 스프링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으므로 맨처음 그가 맡았던 여섯 학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학년까지의 과정을 끝내도록 매년 시간외의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매년(한 학생만 제외하고는)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에 그가 가르친 학생은 백퍼센트 합격했던 것이다.

1922년 엘돈과 그가 졸업시킨 학생 6명은 힐 스프링을 떠나 다 함께 카드 스톤으로 고등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출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를 가르쳐준 은사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쌓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다시 힐 스프링의 옛날 직책으로 돌아와 옛일을 계속했던 것이다.

때는 말할 수 없는 경제 공황 시절이었고 학교 교사들이 받는 월급은 보



잘 짓이 없었다. 그러므로 엘튼 태너는 작은 그의 수입만으로 어쩔 수 없어서 또 다른 수입원을 갖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팔고 그리고 새로 산 멋진 포드 세단차를 팔아 치웠다. 그돈을 밀천으로 그들은 작은 잡화상을 샀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가게를 운영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그러한 잡화상에는 옷가지에서 농기구까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없었다. 가게는 날로 번창해서 마침내는 그 가게와 우편국을 합당하게 관리할 손길이 나질 않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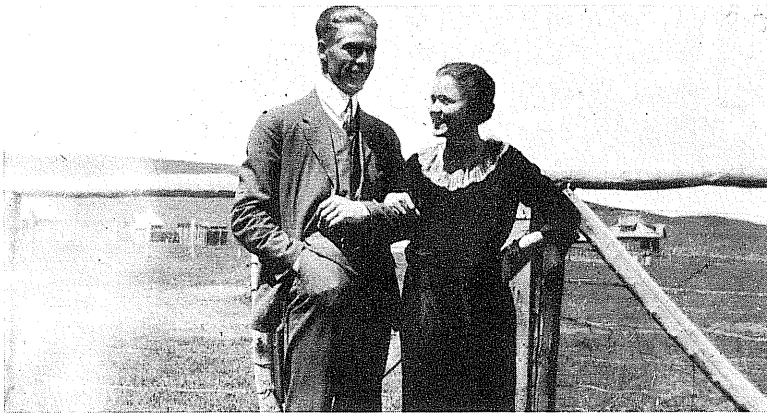
치는 일을 그만 두어 버렸다. 또 그는 레드브리지에서 카드스톤까지의 화물 운반을 스스로 맡아 처리했다.

태너 부대관장은 그 다음에 다시 카드스톤에 있는 교사 자리를 맡게 되었고 가족을 그곳으로 데려왔다. 카드스톤에서 8년동안 일하면서 그는 마을 의회의 의원이었고, 국민학교 교장이었고, 그리고 소년단 대장이었고, 감독단의 보좌였고, 그리고 마침내 카드스톤 제1 와드의 감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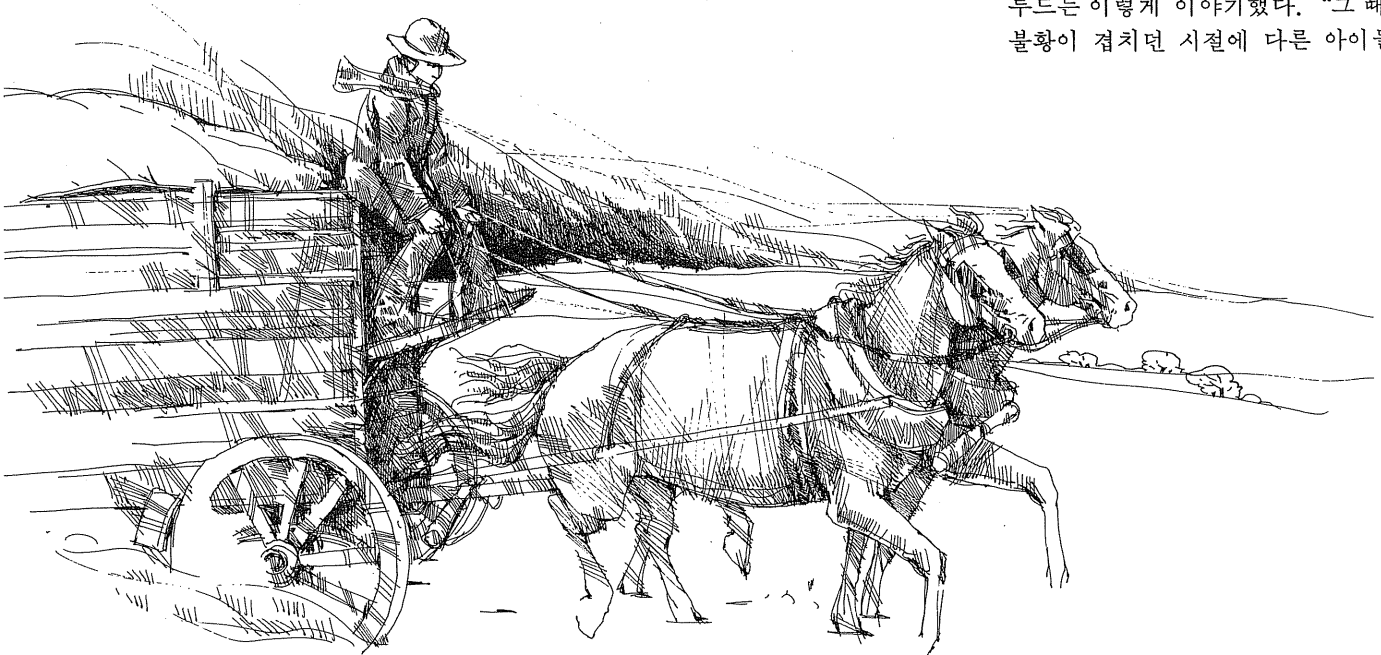
그가 감독단의 보좌로 일하고 있는 동안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겸손함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집사 정원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더욱 그의 재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많은 소년이 그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차차로 알아내게 되었다. 그들은 일요일 날 입고 갈 의복이 없었고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작업복을 입고 가야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주일 그 소년들과의 약속대로 그는 신권회 시간에 작업복을 입은 그 아이들과 만났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그 아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은 것이었고 마침내는 아이들 모두가 백 퍼센트 활동 회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 시절에 그는 양복 판매와 보험 계약 알선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부족한 교사의 월급을 메꿔갔다. 그는 또 집에 젖소를 길렀고 큰 딸 아이들이 매일 우유를 배달했으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우유병을 허리에 혹은 어깨에 메고 한결같이 우유를 배달했다. 태너 자매는 다섯 자녀의 옷을 모두 손수 만들어 입혔고 그리고 가족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분주하게 집안에서 맡은 일을 수행했다. 딸 아이 루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때 그 불황이 겹치던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좌. 1921년 태너가의 첫번째 집과 첫아이.
위. 결혼 몇개월 후의 태너 부대관장과 자매. 당시에 두 사람은 교편을 잡고 있었다.



참으로 가련하게 보였읍니다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바빴거든요.”

태너 부대관장님은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과 독립 정신을 갖추어 일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때때로 그는 회초리를 들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숙한 표정을 지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였던 것이다. 루드는 옛날 자기가 취했던 태도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아, 그런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실걸요!” 딸 다섯이 모두 아버지를 엄하게 알았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아주 엄한 분이었지만 자녀가 몸이 불편할 때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제일 먼저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기도 했다.

물론 남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 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아내가 앉아있는 옆을 지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주거나 혹은 부드러운 눈길을 보냄으로써 자기의 그러한 마음을 전했다. 아내는 그에게 있어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다.

1935년 앨버타 주에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새로운 정당이 조직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태너 부대관장에게 와서 새로운 정당의 입원으로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그



때 그는 소시얼 크레디트 거버먼트에 법무담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가족을 모두 카드스톤에서 에드몬튼으로 옮겨야 했고 그가 이러한 의사를 결정할 때에도 아내와 더불어 오랜 동안 숙고하고 간절히 기도도 간구한 후에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태너 부대관장님이 새로 가입한 조직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연사로 선택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는 회원 6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장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탁월한 조직력과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사 진행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전혀 준비하지도 않은 방면에서 역원으로 일하도록 계속적인 지명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고 매번 그는 자기의 임무를 맡고 자기 능력보다 훨씬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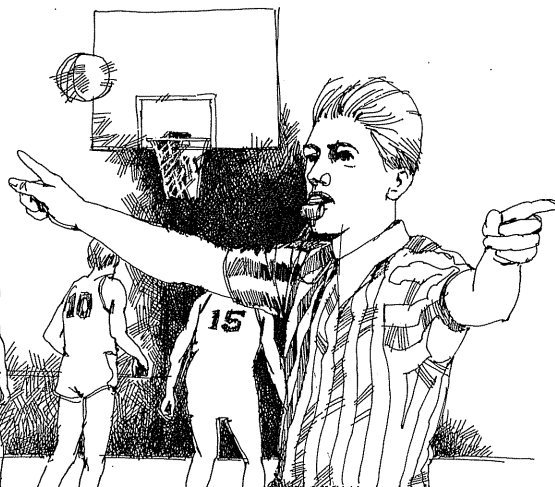
마침내 앨버타의 주지사는 그의 탁월한 능력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

고 1936년 12월에 그를 자기 휘하의 각료로 임명했다. 처음에 그는 자기에게 교육의 업무나 전매 산업의 업무가 맡겨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지사는 그에게 토지와 광산의 업무를 맡도록 했으며 이 두 사업의 범위는 상당히 큰 것이었으므로 나중에는 토지와 산림과 광산의 세 분야로 각각 갈라지게 되었다. 어쨌든 이 부서의 책임을 맡게 된 그는 온갖 자연 보호의 업무와 잠자는 거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앨버타주의 자연 환경 보호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태너 부대관장에게 뿐만 아니라 앨버타주 자체의 앞날에는 커다란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드디어 지역 보호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캐나다 여러 지역에서도 정관의 모범이 된 법률안을 작성했고 그리고 그것은 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표본으로 삼아 이용했다. 그는 마침내 앨버타주로 하여금 캐나다 전역에서는 채무를 지지 않은 유일한 주로 만

위 : 앨버타의 마인랜드 미메탈 회사 대표로 영국을 여행했을 때 (1939년)의 태너 형제 (오른편)

다음페이지 상 : 1949년 1월 레스브릿지의 소년단 모임에 참석한 태너 형제. 그의 옆에는 소년단원이 앉아 있었는데, 관리역원은 두사람을 모두 일어나게 했고 소년을 가르키며 “소년단원이야말로 우리의 재산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태너 부대관장을 가르키며 “소년단원은 이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단 : 내각에서 두가지 직분을 동시에 맡아 일하던 1940년대의 모습.



드는데 성공했다.

그와 태너 자매는 수많은 사회적인 임무와 책임을 맡고 일하는 중 많은 사람들로 부터 찬사와 신뢰를 받게 되었고 그로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친구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훌륭한 친구가 된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된 것이다.

그들은 캐나다와 대영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작고하신 고 윈저공의 초대 손님으로 초대되기도 했고 비버부르크 경과도 만날 기회를 가졌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남부 앨버타주의 소년단을 시찰하고 저들의 사열을 받은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 당시 공주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후에

여왕이 되었고 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공과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도 가졌다. 또한 이들은 발바도스 정부의 초대 손님이 되기도 했고 서부 인디아에서는 유전 및 천연가스 유출 시험에 대한 사업을 여러 달 동안 돕기도 했다.

엔 엘돈 태너의 생애는 복음과 복음의 원리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점철된 것이다. 그가 에드몬톤에서 정부 관리로 일하는 16년 동안 그는 교회의 에드몬톤 지부-지부장의 일을 하기로 했다. 원래 에드몬톤 지부에는 15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었고 남의 집 이층을 세들어서 예배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을 때 성도의 수는 350이었고 그 지부에 속한 회원중 대학교에 다니는 성도들을 위한 신학연구원 건물이 증축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까지 엔 엘돈 태너의 수고가 지대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작업장에 나와서 작업복을 걸치고 다른 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일 했다. 그에게 있어서 꼭 수행해야 할 일이라면 너무 힘들다거나 그가 참여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 브라운 자매와 나는 엘돈이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거의 1년여를 에드몬톤에서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엘돈의 위대한 영향력과 회원 비회원을 망라한 모든 사람들이 엘돈에게 전하는 따뜻한 존경과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호뭇함을 느꼈다.

엔 엘돈 태너가 여러가지 직책을 맡고 놀라운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차근차근하게 받아들여 수행한 데서 결과된 것이며 그는 매번 임무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에 도전했고 그리고 스스로 이루어가며 자기를 향상시킴으로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1952년 정부를 위한 봉사의 임무를 어느 정도는 수행

했다고 느낀 그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켈거리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그는 새로 조직된 캐나다의 메릴 페트 롤륨스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 2년여를 머물어 있으면서 그 조직의 재정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놓았다.

1954년 그는 트랜스 캐나다 파이프 라인 주식회사의 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는 캐나다의 앨버타에서 몬트리얼에 연결되는 파이프 연결 공사로 3억5천만불의 공사를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지나친 경쟁심과 어려운 정부의 사정과 여러 가지로 거대한 사업은 지리멸렬에 빠져있었고 그러한 문제로 캐나다 전역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분열된 힘을 하나로 묶어 모아 정부 정책에 따른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는 나단 엘돈 태너가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처음에 그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마침내 앨버타 주지사인 어네스트 시 매닝과 캐나다의 상공부장관인 호웨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내세워 그에게 설득 작전을 폈고 마침내 그는 머뭇거리며 마음으로 새로 자기가 일하게 된 기름 회사를 떠나 어려운 임지로 발길을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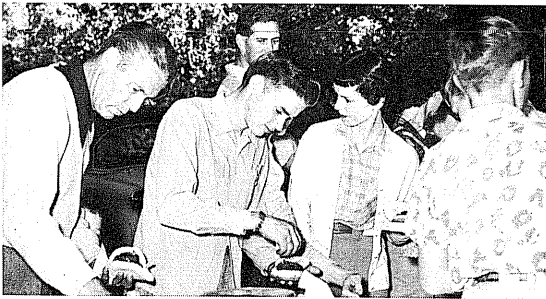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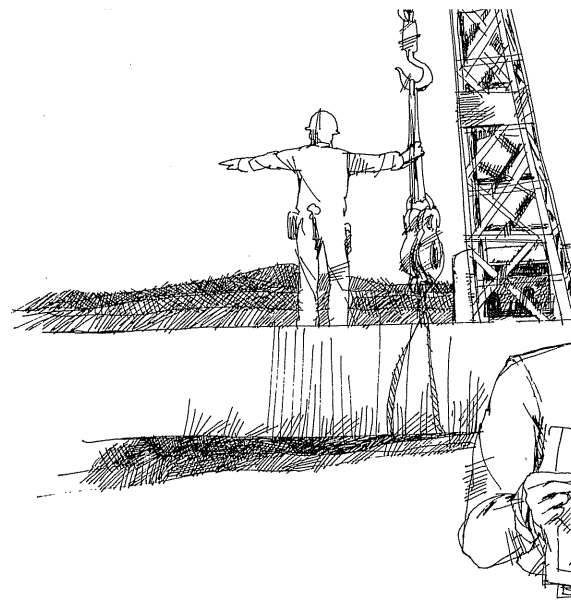
그 때 그는 새로운 켈거리 스테이크의 부장으로 임명되었었고 그러므로 전혀 그는 토론토로 이주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는 토론토에 본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엘돈의 수고를 원하게 된 당국은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켈거리에 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동부 캐나다 지역을 빈번히 여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는 매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와 교회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는 평생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그위에 더하여 진다는 경전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살았으므로 언제든지 교회의 일을 제일 먼저 수행했다.

마침내 그는 2천 마일에 달하는 다섯줄을 가로 지르는 파이프 연결공사를 시작했다. 수백개의 회사에서 개스를 사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캐나다 전 지역과 미국의 일부에까지 판매하려는 작업의 준비 과정인 것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좌: 1959년 스테이크 부장 재임 시 야유회에 참석한 태너 형제. 다음 페이지: 1936년 태너가의 가족사진. 전열 태너형제, 딸 헬렌, 태너자매, 후열 이사벨, 조라, 벳, 롯의 모습.
우편: 솔트레이크 시의 집에 있는 태너 부대관장님과 자매의 모습.



“이사업은 미국 대륙횡단 철도가 부설된 이래의 가장 큰 공사였으며 또한 그 공사가 4년 이내에 끝났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5년간의 계약 기일이 끝나는 1959년 회사는 번창일로로 걸고 있었고 또한 캐나다 전 국민의 꺼지지 않을 영원한 찬사를 받는 회사로 발전된 것이다.

태너 부대관장님과 태너 자매는 1952년에 켈거리로 이사를 왔고 그가 처음 받은 교회의 직책은 와드 교사였다. 태너 자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가 와드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나는 한때 그가 에드몬튼에서 16년동안이나 지부장으로 봉직했던 만큼 혹시 그러한 직책이 그에게 다소나마 뒤로 처졌다는 느낌을 준다든지 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나위없이 기뻐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다. “만약 와드 내에 있는 모든 와드 교사가 주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소명의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감독의 책임량은 아마 50퍼센트는 절감될거요”

후에 그는 레드브리지 스테이크의 고등평의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1953년 11월15일 켈거리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 첫번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후 7년동안 태너 부대관장과 태너 자매는 켈거리에서 친구와 자녀들과 더불어 또한 증손자들과 더불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태너 가족은 참으로 그 유대가 진밀하게 결속된 가족이었고 지금도 그는 틈만 있으면 그의 딸 다섯과, 스물 여섯에 달하는 손자와 그리고 세명이나 되는 증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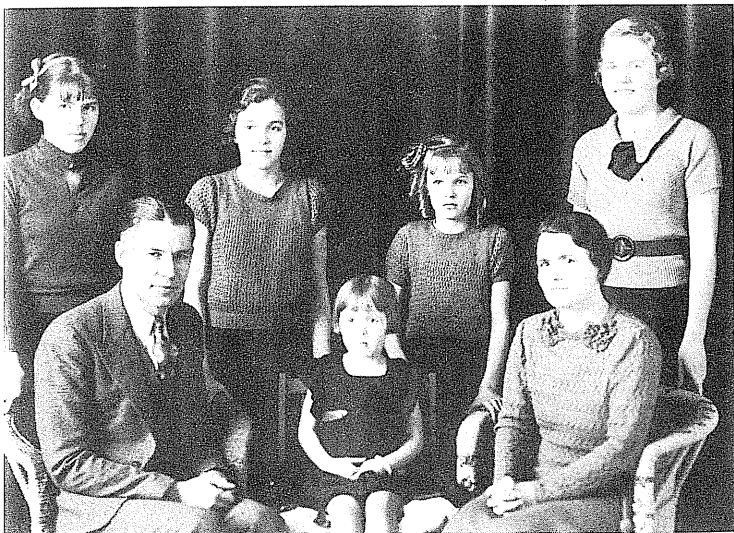
태너 부대관장과 태너 자매는 켈거리에 그들의 꿈의 가정이었던 집을 지었고 그리고 막 그곳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되었을 때 교회의 십이사도 보조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다시 유타로 떠나게 된 것이다.

그는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태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책의 부름을 받아들임으로써 표명했고 교회 일반 총회가 있던 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저는 오직 저의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저의 생애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1960년 10월 9일에 안수 성임 되었다.

그후 즉시 그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나를 동반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새로 조직되는 하이드 파크 예배당의 헌납과 영국과 네델란드에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에 우리를 도움도록 임무를 받았다. 모든 조직의 사무가 끝난 나흘 후 그는 런던 주재 서 구라파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일하도록 다시 부름을 받았다. 그 선교부는 당시 영국제도와 불란서에 있는 두개의 선교부와 네델란드의 선교부를 관할하는 방대한 지역이었다.

1962년 10월에 태너 장로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1963년 1월에는 계보 위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아 솔트레이크 시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그를 대관장단의 제2보좌로 부르신 1964년 10월 4일까지 계보 위원회의 일을 보았다. 1970년 1월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서거하신 후 그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1972년 7월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의 존경하는 대관장이신 해롤드 비리는 그를 제일보좌로 부르셨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관리 역원이 결단을 내리는 엄숙한 시간에 태너 부대관장님은 겸양과 지혜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 그는 이해



“태너 부대관장님의
생애는 한 마디로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으며
개인이나 나라가 합당하게
성장하려면 정신적인 재무장이
수없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와 사랑이 깊으신 분이다. 그가 대관장단의 보좌직을 수락하면서 하신 말씀은 그의 헌신적이었던 생활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본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지와 본인에 대한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서 본인을 축복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의 비서인 라후에 스베프에게 부대관장님의 인품에 관하여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일을 처리하시는 그의 탁월한 능력과 근면엔 그저 언제라도 아연할 뿐입니다. 그분은 또 이해성이 깊으십니다. 임원회의 회원인 그의 측근들은 그의 공정한 태도와 어느 때라도 쌍방의 견해를 모두 존중성도의 빛 1973년 6월호

하시든 태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의협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충성을 다 하시며 의로운 원리를 적당히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늘 방문객에게 친절과 예의를 베푸시며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십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그분의 멋진 유머와 사려깊음에 모두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의 생애는 한 마디로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으며 개인이나 나라가 합당하게 성장하려면 정신적인 재무장이 수없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

한 삶의 목표를 지녔음을 알고 계신다. 정신적 재산은 오직 인간의 내부에만 정리된다는 것을 그는 그의 생애로 입증하였다.

여기 탁월한 관리 능력을 가지며 절대의 정직으로 공직에서 일하며 정치계에서 정적에게까지 정직한 인품의 찬사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 그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한 분이시며 헌신적인 남편이요 아버지이시다. 그는 용기와 의지와 능력을 겸비하신 지도자이시다. 나단 엘돈 태너보다 풍성한 선천적인 재질과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교회의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은 극히 드물다. 이분에 대하여 나는 속에서 우러나는 우정과 신의를 느낀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높은 부름을 받들어 주시옵소서. [국문]

그 시절의 많은 물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일찌기,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1951년 10월 6일에 12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성임받은 이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두고 그는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신해 앞에 나서서 일한 것이다. 그의 정열과 온몸의 힘을 기울여 조력했던 복지 사업의 계획은 비로소 처음 시작된 그의 작업의 시작이 아니었고 이미 그때까지 경험으로 배워온 바 삶의 길이였으며 그대로의 삶의 연장이었다. 이미 그는 스테이크나 와드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경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미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회와 연결된 익숙한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한 것이다.

매리온 지 롬니는 1897년 9월 19일에 이주민 지역인 멕시코의 주와레즈에서 미국인 조지 에스 롬니와 아트메시아 레드 롬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그는 이주민 지역 학교에서 첫번 교육을 받았다. 그 후엔 아이다호주 오크레이에서 학업을 계속했고 북부 멕시코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북으로 내쫓은 후에는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에 있는 리스 아카데미(현재는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그는 1926년 이학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유타 대학을 졸업했고 1932년에는 법률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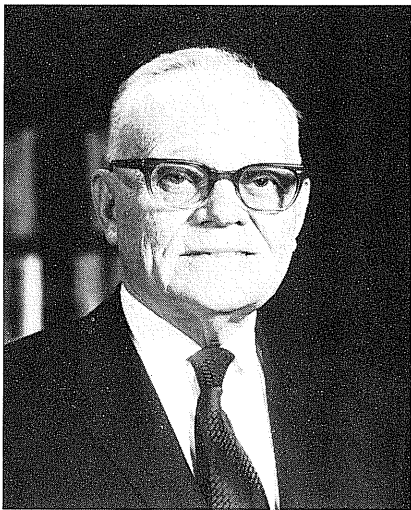
고 그후에는 법학을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이러한 법조계에서의 생활은 특히 그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게 된 현재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가령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정치 활동이라든지 혹은 도덕상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게 될 때에는 특히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 투신한 이래 그는 11년 동안 주의 지방 검사 대리로서 혹은 시의 지방 검사 대리로서 봉직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법무 담당 관리로서 그리고 후에는 미국 육군의 법무 관리로서 봉직했다.

그의 지도력 또한 탁월해서 여러가지로 중책을 맡기도 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의 제33와드 감독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직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버나빌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의 관리직을 맡기도 했다. 그후 1941년 4월 6일 그는 31년이 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의 첫발을 시작한 것이다. 그중 처음 10년 동안은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의 일원으로 일했고 그 후 20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일한 것이다. 그는 어떤 직책이나 부름을 받아 일을 하더라도 훌륭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해 냈다.

그가 총관리 역원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31년 동안 대개는 선교사 사



1973년 6월호



부대관장 매리온 지 롬니 의로움의 상징

12사도 정원회 회장 스펜서 더블류 킵블

업에 힘을 기울였고 그 중에는 멕시코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아 일한 경력도 포함된다. 선교 사업과 아울러 가정 복음 교육의 임무가 그에게 맡겨지자 힘을 다해서 이를 강조했고 친히 감독을 찾아가 자기를 가정 복음 교육 교사로 임명하고 후임 동반자를 지명해 달라는 부탁을 할만큼 열성적이었다. 만약 오늘 너희 이웃에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면 즉시 가정 복음 교육 교사를 임명하라.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만약 내일 또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면 가정 복음 교육 교사를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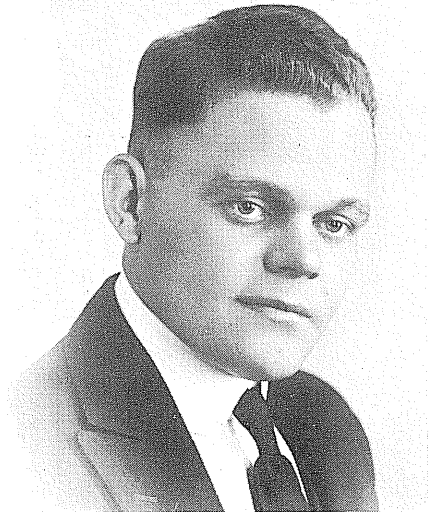
만약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그가 소속된 와드에 참여해 보시라. 교회에서 부여된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임무를 끝마치고 안식일이면 빠짐없이 자기 와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롬니 가정에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방문해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거의 반세기를 두고 계속되어 온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울리는 그 가정의 기도를 듣게 될 것이다. 십일조 기록부를 열어 보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롬니가가 복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예민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려는 사람 중의 한 분인 것이다.

그가 지역 책임을 맡고 멕시코 지역의 임무를 받았을 때 그가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하는 태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했던 일이 있다. 그는 즉시 저들의 언어와 사고와 생활 방식과 저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들과 함께 가까운 유대를 맺도록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멕시코 성도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장래를 내다보는 영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그러한 영감으로 장래의 일을 준비했다. 오늘날 수천의 멕시코 어린이들이 이러한 롬니 부대관장님의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총관리 역원들이 롬니 형제의 임무를 변경시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롬니 형제는 멕시코 사람들을 편애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남 아프리카를 관리하라는 지명을 받기도 했고 서부 구라파와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아시아에 대한 관리 책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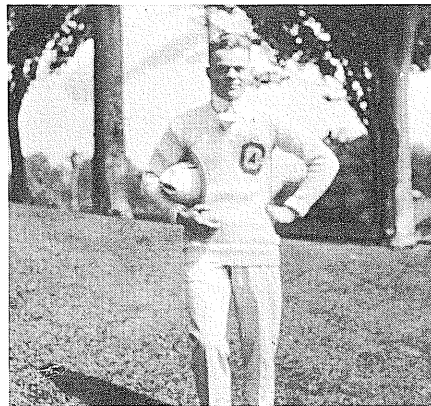
을 맡도록 임무 변경이 있기도 했다. 그가 이러한 여러 나라의 주민들에게 보여준 관심의 도와 저들의 문제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반응은 바로 그가 멕시코 주민들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결국 우리들은 그가 멕시코인을 편애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의 성품이 위대해서 어느 곳에 누구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던지 다만 결양과 사랑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그것에 임하며 그의 사랑과 결양은 온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헨리 반다이크의 이야기를 좀 응용하자면 그는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릴 수 있는 수백개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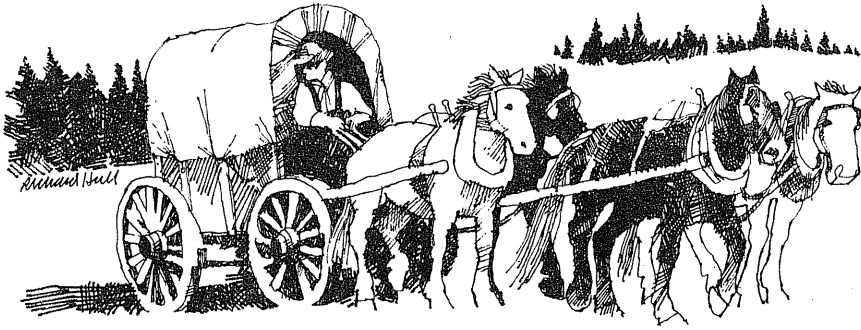


192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메리온 지 롬니.



좌: 1917~20년 동안 렉스 칼리지에서 농구팀의 주장을 지냄. 아래: 1916년도 솔트레이크 시 축구 선수 시절의 모습.





프레스톤가에 쇼핑을 나갔다가 울슨 하이드와 히버 시 킴볼이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1839년까지 약 2년동안 교회에 입회하지 않았으나 그들로부터 참으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후 교회의 회원이 된 다음에는 미국의 일리노이주 나부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아들이며 후에 대 롬니가의 머리가 된 마일스 팩이 탄생한 것이다. 가족은 마침내 대평원을 지나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조지는 잠시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일하기도 했다. 한번은 그들이 십일조 사무실에 나아갔다가 브리감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야기 도중 브리감영은 그들에게 “먼지 많은 선교부”로 떠나가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가족은 다시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 정착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곳은 전 롬니가의 본부로서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롬니 부대관장역시 다른 한편 가문이 출중한 집안이다. 아트메시아 롬니의 할아버지인 솔로몬 챔베레이가 교회에 브리감영과 함께 입회하게 되었고 그는 요셉 스미스의 가정을 친히 알고 있었다. 그는 대평원을 영대관장과 함께 횡단하였으며 관례에

29페이지에 계속

를 배운 것이며 참으로 그는 왕국의 가장 높은 이에게 자기가 하늘에 계신 분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왔으며 작고 나즈막한 오두막에 가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시키며 살았던 것이다.

지금은 그의 입문도 바뀌었고 또 그의 마음의 영역도 온 세상의 주민을 포용할 만큼 넓어진 것이다. 그는 세상을 한 곳도 빠짐없이 수차 방문했으므로 서로 다른 여러 국민에 대한 문화와 문체점과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지금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다.

시온의 아들인 그가 점점 발전해서 마침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완숙해지고 향상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기쁨이요 만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들은 모두 그가 집사, 제사, 장로 그리고 선교사라는 사다리를 오른 것을 본다. 그러다가 그는 감독이 되고 스테이크 부장이 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좌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과 나단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과 더불어 교회의 대관장단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들 중에 그 분을 가깝게 사귄 수 있었던 분이냐 여러 해를 지켜본 사람은 그가 리 대관장님의 보좌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토록 교회의 높으신 부름

에 임한 대관장단의 세분을 지지하고 도울 것이며 이로써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제반 업무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인간들과 더불어 크게 낙심하지 않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타골이 이야기 했으니 참으로 주님께서는 매리온 지 롬니가 그에게 맡겨진 숙제를 끝내며 여러 가지로 체험을 쌓고 그리고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우리들의 부대관장이신 롬니의 인품과 지도력과 강인한 품성은 아마 그 조상들에게서도 엿볼 수 있었던 자질인가 보다. 신혼인 마일스 롬니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가스켈이 영국의





드보라

메리 엘 러스크 작

쥬디 카페네 그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통 슬프고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잔악한 야빈 왕의 군대장 시스라를 앞세워 저들을 정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스라 대장은 그의 군병들을 거느리고 구백대의 준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람비돗의 아내로 여자 예언자였으며 이스라엘의 판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에 있는 종려나무가 늘어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힘센 젊은 청년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 하셨느냐 너는 남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일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고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부치리라”(사4:6-7)

드보라

이에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에 드보라는 대답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 4: 8-9)

바락은 용감한 이스라엘의 젊은 이로 큰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간악한 야빈 왕의 군대를 대적해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함께 군대 대열에 따라 나섰습니다. 군대가 평원을 가로 질러 행진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곳 평원에 천막을 치고 있던 켈사람 헤벨을 만났습니다. 헤벨은 바락에게 간악한 시스라 대장이 대불산으로 올라갔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바락이 만명 군사를 거느리고 행진해 오고 있는 것을 본 시스라는 그의 구백 전차를 정렬하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부치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사 4-14)

주는 바락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간악한 왕의 군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만은 들판으로 달아나 마침내 켈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기거하는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맞아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하지 마소서.” (사 4: 18참조) 그리하여 그가 장막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이불로 덮어 씌웠습니다.

시스라는 몹시 갈증이 났으므로 그녀에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고 청했습니다. 야엘은 우유병을 꺼내 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천막문 앞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르기를 만일 누가 와서 낯선 사람을 보았느냐고 묻거든 그곳에는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시스라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

습니다. 야엘은 천막 말뚝과 커다란 망치를 들고 가서 몸에다가 박았습니다. 이에 시스라는 잠을 자는 동안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마침 시스라를 추격해온 바락이 도착했고 야엘은 그를 맞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이에 바락이 그녀를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시스라는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하나님께서는 가나만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엎드려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야빈 왕을 대적하여 싸운 이스라엘 무리는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사 4: 22-23참조)

그런 후에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셨고 백성이 그를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이 들으라 방백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 5: 2-3) 圖

혹

1973년 6월호

서 털석거리더니 활주로 끝까지 쏙살같이 달려 갔다. 우편 비행기는 통나무 집 바로 앞에 섰다. 비행사는 커다란 우편 주머니를 손에 들고 비행기 밖으로 나왔다.

“자 너 친구에게 부탁을 좀 할꺼니?” 피터는 점점 입장이 곤란해졌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부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더 비행기를 쳐다보다가 친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샘, 난 아마 또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애, 난 정말 그 비행사를 모르거든. 이름도 모른단 말야.” 피터는 우편 비행사가 통나무 집 가까이 서있는 줄도 몰랐다. 정말 피터는 아무 정신도 없었다. 그는 의자에 걸터 앉은 채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피터가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좀더 비행기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달려 나갔다. 피터는 혼자 화를 내고 있었다. 자 이제 샘이 그가 거짓말을 한줄을 알고 있으니 샘이 그를 믿어 주겠는가? 피터는 다시 비행기를 쳐다 보았다. 비행기는 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은색 꼬리에 흰빛과 푸른색을 칠한 비행기였다. 그는 조종석에 앉으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의 사촌 프레드는 지난 주에 홀트웁크톤에서 피터에게 편지를 보냈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우편 비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비행사가 프레드를 비행기 안으로 들어 오도록 해주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 조종사 자리에 앉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이 비행사가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간을 틈타서 나도 한번 친구가 되도록 해보아야 되겠다고

성도의 빛 1973년 6월호



쌍둥이 광대찾기

비버리 존스톤

피터는 생각했다.

피터는 자기가 얼마나 오래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손이 어깨에 와서 닿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비행사가 웃고 서 있는 것이다. 네 이름이 뭐지?”

“피터, 저 피터 아국입니다.” 그는 더듬더듬 대답했다.

“내 이름은 벤이란다. 난 네가 네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정직한 아이를 좋아하거든.”

조종사의 큰 손은 아직도 피터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피터는 불안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그는 벤에게 흰색과 푸른색으로 칠한 그런 비행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고 언젠가는 자기도 그런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비행사는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말이다” 그는 입을 열었다.

“내가 시간이 나면 내 비행기를 태워줄께.”

피터는 정말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정말입니까?”

“자, 그런데 약속이 있어. 지금은 이 우편 가방을 날라다 주어야 되겠는데, 하겠니?”

피터가 무거운 우편 가방을 들고 새로 친구가 된 그 비행사를 따라서 활주로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일찍이 맛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다. 피터는 온통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그는 9살난 아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



20페이지 에서

따라 그의 말마차를 몰았었다. 롬니가의 멕시코 생활의 이야기는 1885년에 시작된다. 그때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멕시코 관리의 허가를 받고 북부 멕시코 지역에 정착민 지역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시절인 1897년에 매리온 지 롬니가 탄생한 것이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손수 집을 지었고 대개는 정원과 작은 과수원과 들소를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매리온 지 롬니 장로의 모습.

놓아 먹일 정도의 땅과 알팔파와 옥수수라든가 기타 농작물이 자라나는 토지를 조금 갖고 있었다. 이들은 그 지역 주재 관리들과 공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들판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매리온과 그의 친구 소년들은 매일 목초장으로 소를 타고 나가곤 했다. 매리온이 평생을 두고 좌우명으로 삼아 온 그의 아버지의 가르치심은 이러한 것이었다: “네가 사력을 다해서 이랑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중도에 멈추지 마라.”

매리온은 매리온가의 장남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참으로 많았다. 또한 그토록 어려운 일을 맡은 소년으로서 높은 언덕에 올라 가축떼들을 돌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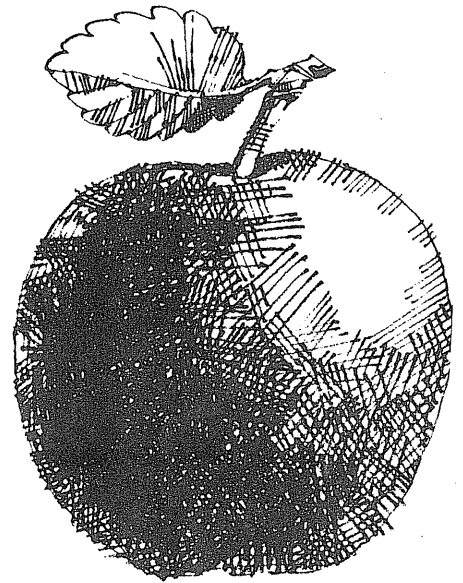
서 다른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하는 것을 내려다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무 발자국 뒤에 있는 교양의 입에 명중해서 젖을 찢 수 있을 만큼 젖짜는 기술이 놀라웠다고 자랑하고 계시다. 한번은 그가 소를 타고 맥크레틴씨의 담과 길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내려 오고 있을 때 맥크레틴씨의 담장 가까이에 늘어진 사과 나무에 달린 사과가 알맞게 익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태여 안으로 들어가 딸 필요가 없었다. 소잔등에 탄채로 돌 몇개를 나무가지 사이로 힘껏 던지면 영락없이 사과 몇개씩이 떨어지곤 했다. 그는 그것들을 주워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왔다.

“그건 우리 사과가 아니지 않니,” 어머니는 조용히 나무래했다. 그후로 그는 다시는 소잔등에서 돌을 던지지 않았으며 어린 소년은 정직함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그 교장을 떠나야 했던 날 아침이라고 기억된다.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마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혹은 기차를 타기 위해서 혼잡을 이루고 있었고 조지 에스 롬니는 열 다섯 살 짜리 매리온을 옆에 앉힌 채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가혹하고 냉엄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실을 들려 주었다. 이제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교장을 떠나야 했다. 피어슨 앞 정거장 광장은 온통 말과 마차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멕시코에 장정들이 남아 있는 한 자기도 한 가정의 남자로서 그 곳에 남아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성장으로의 발걸음이 이 젊은이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젊은이의 어깨에는 또 다른 책임의 짐이 걸리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의미로 인생을 발돋움하게 되었다.

가족은 잠시 엘파소에 머물렀고 그곳에 남편과 아빠가 돌아와서 합류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 후 그들은 캘리포니아에 가서 잠시 머무르다가

카시아 아카데미의 본고장인 아이다호주 오크레이에 도착했다. 조지 에스는 자기의 중단되었던 공부를 계속하고 교육계에 투신해서 일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결국 그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그곳 아카데미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와 그의 형제 가스켈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으로 그곳에서 열심이 일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그곳에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생활은 무척



어려운 것이었다. 한번은 월급날이 되었는데 두 집의 가족 아홉 사람을 위해서 남은 돈이 모두 80불이었다. 자 어떻게 십일조를 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이미 그때까지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만약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해하실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했다. “십일조는 반드시 바쳐야 한다.” 그리하여 별로 입지도 못한 매리온은 추운 아이다호의 겨울 추위를 뚫고 그 날로 돈을 전하기 위해서 감독님께로 갔다. 그는 십일조 영수증을 가지고 롬니가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후 십일조를 내는 일이 다시는 그토록 힘들지 않았다고 후에 그는 슬



상 : 1936년 십이사도였던 롬니 장로
 우 : 1962년 임프르브먼트 이라의 10월호 표지 사진으로 템플 스케어에서 찍은 사진.



회했다.

롬니 가족은 오크레이에서 3년을 살았다. 40에이커짜리 농장에서 생활한 지극히 어려운 3년이였다. 어린 매리온은 집안 농장 일을 돕기 위해서 추수 때 모든 곡물을 견우어 들일 때까지 학교를 쉬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목수의 기술을 배

웠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을 때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 기술을 썼다.

매리온의 아버지는 매리온이 불과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 어린 매리온은 점점 자라 소년기를 맞았고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까마득한 것처럼

처럼 느껴졌다.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으므로 자라나는 소년인 매리온에게 선교사로서의 부름같은 것은 참으로 생각밖의 것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가족은 텍스버그로 이사를 했고 매리온은 직장을 찾아 돈도 얼마큼 저축했다. 그는 교회 대회에 참석해서 당시 십이사도의 한 분이 되었던 벨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받은 영적인 감화와 감명이 참으로 특이한 것이었다고 후에 술회했다. 그때 합창단 말석에 앉았던 이 젊은이는 모임이 다 끝나도록 벨라드 형제님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으로 믿을 수 없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에는 새롭고 움직여지지 않을 확고한 신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모임이 끝나자 어린 매리온은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버지, 저는 선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제게 돈이 얼마쯤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릴 수 있다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하여 들은 은행으로 갔고 이들을 신임했던 친절한 은행에서는 원하는 용자를 해주었다. 그리하여 매리온은 마침내 호주행 배를 타게 된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롬니 부대판장은 그의 채무를 갚았다. 롬니 부대판장님은 그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 자기가 끝까지 군중에 묻혀서 버려진 몸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회의 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훌륭한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11살과 12살 사이에 그의 아버지인 엘 에치 레드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미 범속한 인간이 아님을 확인받았다. 그는 또 위대하고도 큰 일을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한 특권이



1935년 주 의원인 롬니 장로와 그의 아내인 아이다 젠슨 롬니 자매.



성도의 빛 1973년 6월호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인생을 시작한 아침의 시기에 있는 그로서 앞으로 맡겨질 일에 대비하여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라는 권고의 말씀도 들었다.

그가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여러 학교를 다니며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실을 살펴보면 그가 약속받은 일을 수행할 만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천사들이 네 곁에서 너를 보살피며 너의 선한 길로의 전진을 위해서 너를 도우리라.” 그의 오스트랄리아에서의 첫번 선교 사업이 시작된 1920년 이래 그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굵기야는 수백만의 사람을 뜻하기에 이르렀다. 그 위에 자기를 지켜주는 천사들의 가호를 받는다니 그 보호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이런 축복도 있었다. “네가 평화로운 화평의 속삭임의 느낌을 받게 되거든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분, 매리온 지 롬니는 이제 그러한 속삭임의 음성을 자주 들으신다. 그는 마치 그의 인생의 일부분인 것 처럼 늘 화평함을 느끼신다. 함께 일하시는 총판리 역원 형제님들은 그가 주님께 기도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그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며 그는 부드럽고 성실한 음성으로 참된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줄을 우리가 알며 또 주님께서 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안다. 그는 참으로 성실하게 대하므로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깊이 감명을 받는다. 또한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기도를 하시므로 우리들 전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선다고 하는 느낌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병든 자와 고난에 쫓기고 시달림을 받는 자를 위로하고

또 병을 낫게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최근에 내가 심장절개 수술을 받고 요양하고 있을 때 내 건강이 아주 쇠잔했다고 느껴지고 나는 조금 쯤은 낙심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내 집을 찾아 주었다. 그가 내게서 떠나기 전 나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앙의 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 “그대는 높은 영예를 지니며 그대가 이해할 수 없을만큼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그대의 권고를 구할 것이며, 그대의 후손이 그대를 떠 받드리라. 그대의 신앙이 그대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또한 그대는 그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왕국의 신비를 알게 되리라. 또한 많은 사람에게는 불가사의 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도 그대는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또한 미래에 대한 시련이 그대에게 열려 그대는 모든 것에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리니 참으로 그대는 야벳 형제가 기쁨으로 느꼈던 그러한 신앙과 비슷한 신앙을 누리게 되리라... 그대는 또한 주님의 사업에 점진하여 참으로 신임받는 지도자의 직책에 부름 받고 일하게 되리라.”

롬니 부대관장을 측근에서 오래도록 사귀게 된 몇몇 사람들은 이와같은 여러가지 축복이 결실되는 과정을 오래도록 지켜보았고 현재의 매리온 지 롬니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것이 10년이나 2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아니오 어려서 현재의 바로 그가 점유한 그 기회를 얻기까지 그와 같은 자질, 기회, 시련, 특권과 도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저 입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며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아이다호 폴의 아이다슨이 릭스 아카데미에서 교편을 잡기 위해서 적시에 오지 않았던들 자기의 생애는

“그는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릴 수 있는 수백개의 언어를 배운것이며 참으로 그는 왕국의 가장 높은이에게 자기가 하늘에 계신분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 봤으며 작고 나즈막한 오두막에 가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키며 살았던 것이다.”



롬니 부처의 최근 모습.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롬니 형제가 강조하리라고 믿는다. 아카데미의 지도자였던 아버지에게 의해서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곧 매리온을 만났고 이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1924년 9월 12일 저들이 결혼한 이래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아이다는 영광의 때나 고난의 때에 항상 그 옆에 함께 있다. 그들은 함께 아주 심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나 거의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고 특히 그녀의 삶이 소생된 것은 기적적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녀는 남편의 인품과 하는 일에 늘 존경을 표시했고 그가 여행을 하고 있거나 곤경에 빠져있을 때는 내조의 힘을 아끼지 않았다.

매리온 지와 아이다 롬니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었다. 그 중 둘은 별로 오래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 후 아들 둘이 모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가 태어나 각각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 리처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내 조안나와 다 큰 아들 딸을 슬하에 두고 있다. 조지는 솔트레이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아내 조안나와의 사이에 14살에서 갓난 아이에까지 이르는 자녀 다섯을 슬하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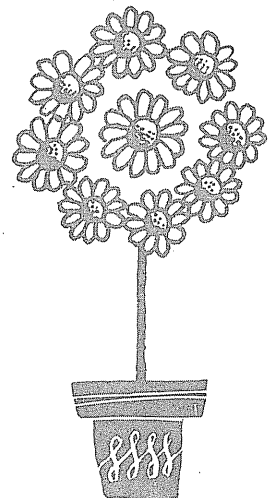
매리온 지 롬니의 저력과 일을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그의 성품을 알아보려면 그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저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그가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를 옆에 서서 지켜보면 된다는 뜻이다.

그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직접 느껴 보려면 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축복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된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자리는 온통 거룩한 성소가 되고 만다.

롬니 부대관장님이 받은 약속과 축복의 언약은 수없이 많으나 특히 그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받은 약속은 이러하다: “그대가 나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대가 갖는 신앙으로 하여 축복받을 지어다. 그대는 여러가지로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대와 그대 가족을 축복하리니 참으로 그대의 후손들을 낳날이 축복하리라. 저들이 모두 진리를 알고 믿게 되며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그대와 더불어 하나가 될 날이 이르리라.”

이제 새로운 임무와 기회와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된 그를 위해서 그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사 그가 필요로 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 평생을 두고 밝은 등불을 높이 치켜 들고 살아온 그는 지금부터는 더욱 높이 그 등불을 흔들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리온 지 롬니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로의 중간

조지 듀린트



1973년 6월호

내가 중학교 삼학년 때였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내게는 미로의 중간이었던 것 같다. 내게는 확신같은 것이 없었다. 나의 행동은 대부분이 나의 그 열등 의식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아마 내가 자기에 대해서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그토록 빛나고 또 나의 생애를 이끌어 준 길로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금요일 세계 수업이 시작된 때였다. 출석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은 저마다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혹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었다. 만약 “준비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일어서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수월하게 그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간이 돌아와 내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나는 자신 만만한 태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로 일관했다. 내 친구들도 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의 묘미를 터득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의 구름으로 쉽게 쉽게 넘어 가려고 했다. 한번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학생들의 활동 기록을 적은 선생님의 기록부를 들여다 보면서 내 이름을 볼 수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뒷 공간에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길게 들어 있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친구들 앞에 일어서서 발표를 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두려운 일로 느껴졌었다.

내 바로 앞에는 내가 참 좋아했던 소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소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학교에 올 때는 그녀에게 전해 줄 좋은 이야기를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막상 그녀를 만나면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되고 혀가 얼어붙기라도 하듯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는 중에 또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나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그 소녀가 내게 커다란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며 “너는 왜 한번도 준비하지 않니?”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참견을 해?”라는 황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날 집으로 가서 신문을 펴놓고 주제를 하나 골랐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번 되풀이 해서 읽어 마침내 그것을 외었다. 나는 그 기사를 오래 잘 접어 가지고 지갑 속에 넣고는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녔다.

다음 금요일 내가 늘 앉는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

선생님은 다시 이 아이 저 아이의 이름을 쳐다보지도 않고 부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선생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 자신있는 소리로 “준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이름을 부르시자 말고 똑바로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고개를 똑바로 치켜들고 자신있게 끄덕거렸다. 내 앞에 앉은 소녀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반역자!”라고 하는 표정을 얼굴에 담은채 나를 쳐다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자리에 앉아서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며 마음 속으로 “도대체 내가 왜 준비했다고 그랬지?”라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겁이 났다. 그후에 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일어나서 하고자 하는 바를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조금씩 겁을 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학생들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낱말 하나하나를 모두 외우고 있었다. 마지막 한 줄을 다 전하고 나서 나는 잠시 그곳에서 있었다. 값진 교훈이 내머리를 지나쳐 마음 속에 안기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다른 소리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맥박의 소리만 크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이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번이고 되짚어 보았다.

나는 참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어려운 입장에서 구해 주며 또 마음에 압박감을 풀어 준다는 것을 배웠다. 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한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며 쿨레를 벗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게 할만한 일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것이다. ㉠

가정 복음 교육 교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 몇 가지

비시 프레임

교회를 돌보는 신권의 원리는 (가정 복음 교육) 이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주님께서 구상하신 것입니다. (교성 20 : 53참조) 그러므로 이 임무는 신권 소유자로 처음부터 상속받은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 교사라면 여러분의 능력과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올바른 태도로 임하기를 원하며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권을 소유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이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

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교성 20 : 47, 53-55)

또한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각 가족을 관리하는 신권 소유자로서의 가정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관리하는 가정을 교회의 기본 조직이라 한다. 신권의 반차에 따라 가정 복음 교사는 가정의 관리 신권 소유자인 아버지를 통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하시를 막론하고 아버지로서의 직분은 인정되어야 한다. 주님은 가족을 영생으로 인도함에 있어서나 기타 교회 단위와 관련하여 가족의 의로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책임을 아버지에게 주셨다. 아버지와 함께, 또는 아버지를 통하여 활동하는 가정 복음 교사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1971년판 신권 가정 복음 교육 지침서)

문제는 좋은 방법과 해결안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다음에 소개되는 질문 하나하나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연구하신다면 바로 “교회를 돌보는”자로서 합당하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1 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맡은 가정의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도움을 간청했는가? 나는 함께 일하는 아버지들과 기도했으며, 필요한 때 홀로 기도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맡은 가족과의 정상적인 유대에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 구했는가? 나와 나의 신권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를 도구로 쓰시도록 간구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의 가정들을 강화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가? 나와 나의 동반자는 주님의 권고를 구했는가?

2 나는 나의 신권 지도자의 지시 사항을 경청하였는가? 나는 과연 나의 신권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 가정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만큼의 사명감과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가?

3 나는 비록 아버지가 비활동적이거나 비회원인 경우에도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또는 그를 통하여 일함으로써 가정의 성스러운 유대를 존경하고 있는가? 나는 필요할 때 가정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같이하여 의논하는가? 나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가? 나는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늘 그가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는가?

4 나는 늘 내가 책임 맡은 여러 가족과 더불어 우정과 신뢰를 형성하고 지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5 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내게 부여된 기회와 부름이 가족의 아버지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기적인 가정의 밤과 매일 매일 여가를 이용해서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가르칠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는가? 나와 나의 동반자는 특별한 경우에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는가?

6 나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회원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조용한 준비 시간을 가지며 계획하는가? 혹은 바로 최근에 회원이 되었거나 별로 활동적이 아닌 회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가?

7 나는 감독이나 지부장님 혹은 나의 신권 지도자가 내게 지명하신 특별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자로서의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하는가?

8 나는 내가 맡은 가족이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경우 일일이 인사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결석했을 때 나는 책임감을 느끼는가?

9 나는 주님의 전당에서 영원한 인봉 의식을 받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가?

10 나는 내가 맡은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그들이 효과적인 가정의 밤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1 병, 사고, 죽음 또는 기타 긴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나를 찾으며, 나는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가?

12 나는 내가 맡고 있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신권의 뜻을 욕되지 않게 하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주는가?

“보라 내가 법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에 강요 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중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 못해 일을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지은 이는 내가 아니냐? 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죄없다 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하고자도 이를 이루지 아니하던 때가 있더냐?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에 저들이 마음 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저희 상은 땅 아래로 숨어 버리며 하늘에서는 내려오지 아니할 연고니라.”

(교성 58 : 26-33) ㉞

복음과 동물

제랄드 이 존스

동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동물들을 숭상하는 자세로부터 잔인하게 학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이다. 동물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떠한 것일까? 고금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말씀하셨다.

이땅 위에 동물을 살게하신 이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더라고 하셨다(창 1:25참조)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인간은 모든 동물을 다스려 왔다. 그렇게 해야 했던 심각한 이유에 관해서 요셉 스미스의 영감에 의해서 번역된 영감역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그대를 위한 고기로 썩어질 것이다. 땅에 자라는 모든 푸른 식물을 포함한 모두를 너희에게 주노니... 참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식으로 쓸때를 제외하고서는 피를 흘리는 일을 금할지니라.

그러므로 모든 짐승의 피를 네 손에 붙이리라.”(창 9:9영감역)

동물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은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 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시며 곡식 또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신 25:4) 그런가 하면 소와 나귀를 저리하여 갈지 말라고 하셨다. (신 22:10)

주님께서 히브리인에게 가르치시기를 비록 적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동물에게 너무 과한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출 23:4-5) 비

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일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출 20:10) 잠언에 보면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잠 12:10)

선지자 이사야는 북천년의 때가 되면 살아 움직이는 육축에 대한 잔인한 대우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고 예언 하셨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사 11:6-9)

주님께서 또 북천년에 동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에 관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편안히 높게 하리라.”(호2:18)

또다시 주님께서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누가복음 12장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팔려간 참새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동물의 생명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말일성도 경전은 교리와 성약입니다. 1831년 3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비록 인간에게 채식주의가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동물을 살육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리에 대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육식을 금하여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일된 자가 아니니라,

“보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음식과 의복으로 사용하고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이니라.

“피를 흘리거나 필요없이 고기를 낭비하는 자에게 화있도다.”(교성 49:18-19, 21.)

성경을 개역 정리하시면서 예언자는 계시록 4장 6절과 교리와 성약 77편에 수록된 네 가지 짐승에 관해서 보다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어 이를 주님께 여쭙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관하여 “천국 곧 하나님의 낙원에는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을 나는 새와 기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육축들이 거하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동물의 부활된 상태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전의 비구절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저들은 온전한 지식을 갖추게 되고” 행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등등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캠프가 진행되고 있던 1834년 여름, 동물의 생명에 관련된 실질적인 시행 대책을 촉구하게 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의 역사 기록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소리내는 독사뱀 3마리를 발견했다. 형제들이 죽이려 하자 나는 그대로 두라고 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저들과 똑같은 태도를 지니고 저들과 전쟁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독사들이 독을 버리겠는가? 난폭한 짐승 앞에서도 사람은 해를 입지 않고 살아야 하느니 만일 인류가 독한 성품을 버리고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그친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되고 젖먹이 어린 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형제들은 막대기로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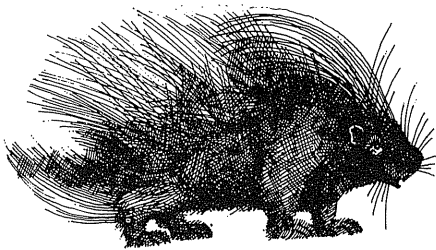
사를 집어다가 개울 건너에 버렸습니
다. 나는 형제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아사의 지경에 이르러 음식물을 필요
로 할때를 제외하고서는 뱀이거나 새
거나 어떠한 동물이라도 여행중에 합
부로 죽이지 말도록 권고했다.”(교회
정사 제2권 71-72페이지)

여행을 시작한 약 한달 후에 있었
던 두 가지 사건에서 형제들이 예언
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음
을 알게 된다.

“오늘 아침 하이람 스트레이튼과
그의 동반자가 자고 일어난 후 모포
를 정돈하다가 소리내는 독사뱀 두
마리가 자리 밑에서 조용히 잠을 자
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들은 뱀 두
마리를 조심스럽게 캠프 밖으로 옮겼
다.”

그리고 또 보면 “형제들이 브리감
영 대장의 천막에서 잠 자리를 떠다
가 요란스런 소리를 내는 독사뱀을
발견하고 죽이려 했다. 영 대장은 그
들에게 뱀을 죽이지 말고 천막 밖으로
집어내라고 했으며 이에 카펜터 형제
는 맨손으로 뱀을 들어서 밖으로 옮
겨 내다가 풀어주면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교회 정사 제2
권 101-102페이지)

게시록에 기록된 바 요한이 시현으
로 설명한 동물의 모양과 이 세상 이



후에 있는 동물의 상태에 관해서 예
언자 요셉 스미스는 요한이 아마도
하늘에서 “우리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동물” “수친 가지를” 보
았고 따라서 온갖 종류의 동물이 하
늘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또
한 그는 설명하셨다. “요한은 하나님
께서 손수 지으신 짐승과 하늘을 나

르는 새와 물속에 고기와 또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심으로써 더욱 영광
을 얻으신다는 사실을 배웠다...”(교
회 정사 제5권 343페이지)

그는 또 동물의 부활에 관해서 이
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동물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
지 못하겠습니”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계시가 참되지 않다고 이야기
하며 도저히 동물의 구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
을 드리는 동물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뜻을 이해했습
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
신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번째로
중요한 동물인 것입니다. 또한 저들
이 온전했으므로 다른 세상에서 구원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범주에
서는 천사와 같았습니다. 저들이 과
연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
지지 않았으며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저들이 하나님을 기리
며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들었
습니다. (교회 정사 제5권 343-44페
이지)

브리감 영도 동물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를 들면 솔
트레이크의 옛 태버나클에서 전하신
설교의 말씀 가운데 그는 “인간은 거
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딛고
있는 땅 덩어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의 영으로 가득차고 충만하며 모든
동물과 땅에 기는 것들이 평화로움으
로 가득차게 해야 합니다...”

사는 상태가 순화될수록 갈등과 전
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
에 대해서 더욱 큰 친절을 베풀게 될
때 더욱 큰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야생의 창조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제1권 203페이지)

또한 영대관장님께서서는 말일성도들

에게 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
가하신 모든 것들을 올바른 태도로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결코 해
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동물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저들의 가축
과 말을 돌보아야 하며”라고 하셨고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의 눈 길 앞에 자기의
몸을 맡겨 책망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설교집 제11권 141페이
지)

말일성도들 가운데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보좌였던 조지 큐 캐논 형
제님보다 동물을 합당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신 분은 없
습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의 편집자
로서 그는 1868년에 동물을 친절하게
대하자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에는 주일학교가 주관하는 “은
정의 날”을 정하여 발표하고 이를 매
년 2월 중에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이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이
십년 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그의 일
기에서 칭찬을 받은 이후 사냥에 대
한 자기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
했습니다. “사냥에 대상이 된 짐승을
쫓아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나
의 마음은 '본능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요구에 사로 잡히곤 했습니다. 그것은
해를 입히지 않고 참으로 무고한, 어
찌면 내가 나의 인생을 즐기듯 그런
게 목숨을 누리고 살 권리를 가진 짐
승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혹은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기쁨을 얻고자하는 그
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그러한
방종스러운 요구가 합리화될 수 없으
며 나의 그러한 생각이 멧뚤까지 못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총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
왔으며 그때 이후로 살상을 하여 즐
거움을 얻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
조지 큐 캐논에 이어 청소년 인스트럭

“메시아를 찾는 유대인 법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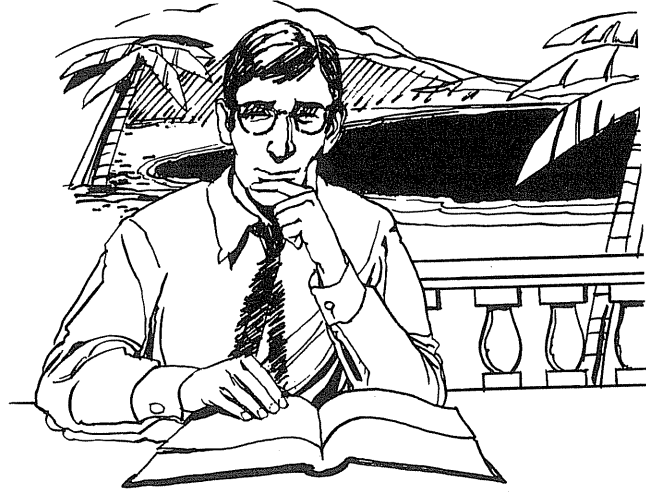
아이작 스바르츠 베르그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

나는 현재 변호사로서 정통적인 유대인의 집에서 태어나 남 아프리카 트란스발리아에 있는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은 아주 엄격한 유대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나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으나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의 충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규적으로 회당에 참여했고 정통적인 유대인의 집을 꾸러 나가려 했으나 마침내 나는 그러한 나의 시도를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의 결혼은 이혼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어떤 기적과 같은 날, 나는 지금 나의 아내 에드윈나를 만났습니다. 이미 나는 그녀가 물몬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나는 나의 생명보다도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 여자와 데이트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가족의 문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6개월 동안만 물몬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동시에 에드윈나에게는 유대교에 대해서 6개월 동안만 공부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에드윈나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잘 아실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나는 책을 읽으며



걱정하면서 외로운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아침, 새벽 두시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머리 속에서 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시편 23편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시편 22편은 주의깊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머리 속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아주 오래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끔찍한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자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 졌으며 내 마음은 찢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 : 13-19)

내가 이 구절을 읽고 나는 나의 생명이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이셨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다음 석달 동안 이제까지의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전 생애가 바뀌었고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었다는 지식으로 해서 나는 그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몬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확신하게 한다” (물몬경 서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읽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내게 복음의 참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에드윈나에게 가서 칩레 받고 싶다는 나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후 우리들은 결혼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마흔 한 살로 트랜스발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내 생애에서 지금과 같은 만족을 맛본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의 목표를 가졌던 때도 없습니다.

1973년 6월호



금식에 관하여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로버트 제이 매튜 씀

금식 간증회가 반쯤 지나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들릴 때 우리들은 대개 금식하는 것이 적어도 즐거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는 금식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진실로 이것이 금식이요 기도니, 다시 말하면 기쁨이요 기도니라.” (교성 59 : 14)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시하는 것을 뜻하고 이 기쁨이 곧 인간의 존재 이유다. (니이 2 : 25) 금식은 우리가 창조된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금식 주일날 과연 기뻐할 수 있느냐 혹은 우리가 금식하기로 정한 다른 날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이다.

왜 금식하는가?

경전에는 금식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적혀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난을 당하는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음을 보시고 설명하시기를 “기도와 금식”으로서만 언어질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의 한계가 있다고 하셨다. (마 17 : 14-21 참조)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저들이 레이 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동안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칠 수 있었다고, 후에 보고했다. (앨 17 : 3) 이미 교회에 입교할 당시에 복음

의 진리에 대한 기초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었던 엘마는 그후에 “여러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복음 교리중의 몇가지 사실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고 증거했다. 그는 자기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 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간증을 얻었던 것이다. (앨 5 : 44-47)

금식은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다음 말씀 즉 “나는 저희가 병 들었을 때에 굶은 배움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시 35 : 13)와 “내가...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시 69 : 10)에 잘 나타나 있다.

예언자 아벨레카이는 금식과 구원을 함께 강조하며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라. 주가 살아 계시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욘 26절)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말일에 계시를 통해서 금식하도록 명하신 때문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지이다.”(교성 88 : 76)

언제 금식하나?

금식은 자주 예배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다. (모로 6 : 5, 니삼 27 : 1, 니사 12절).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태도로 금식을 이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와드나 지부를 단위로 해서 정한 날 모두 함께 금식하고 금식 기

금을 교회에 바쳐 가난한 자에게 전하도록 한다. 특히 안식일에는 식사를 간단히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준비로 인해서 안식일의 영적인 분위기를 저해할 만큼 준비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이 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금식일에는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 (교성 59 : 13)

교회 회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박해자들의 마음이 돌려지도록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우에 좋은 예가 모사이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엘마와 제사들이 주께서 엘마의 영과 육체를 고쳐 주시도록 “이틀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모 27 : 22-23)

그후 엘마가 교회의 대제사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이 부되도록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앨 6 : 6)

아름다운 에스더 왕후는 그녀의 백성과 함께 자기들이 페르샤 왕의 가혹한 명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흘 밤낮을 금식하여 구원을 받았다. (에 4 : 16)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고넬료는 금식했으며 베드로가 그러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파견되었다. (행 10 : 30-33)

안디옥에 있던 어떤 지도자들은 과

연 누구를 불러서 선교사로 성별해야 할까를 결정하기 위해 금식했다. (행 13 : 1-3)

금식은 전쟁 때에나 죽음을 당한 때에도 언급되었다. 저들이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성실한 니파이인들은 “참으로 크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앨 45 : 1)

그러나 승리는 참으로 값진 여러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얻어진 것이며 그들은 금식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통곡하는 자의 마음에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었고 그 값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저들이 이 모든 시체를 묻고 여러 날을 금식하고 애도하고 기도한 뒤...은 땅엔 다시 평화가 계속되었더라.”(앨 30 : 2) 또 다른 때에 니파이인들은 “모두 물려와 살해당한 저들의 위대한 재판사의 장례 식전에서 금식하며 비통해”하였다. (히 9 : 1)

사람이 금식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고 간증을 얻으며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영적인 안녕을 누리는 까닭에 죄를 진 자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의 정도로 되어 있다. 아들 엘마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나서 엘마는 삼일 동안 금식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입조차 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동안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그의 영혼을 사로 잡았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는 부친이 예수 그리

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점점 넓게 그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었고 마침내 마음속에 자리잡았던 죄의 그림자를 뒤덮어 버렸다. “아 참으로 (나는)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엘 36 : 10-20) 바울도 그가 기적적으로 개심하게 되던 때 사흘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했다. (행 9 : 9)

그러나 의도한 일이 주님의 뜻과 상반될 때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윗은 고통을 받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으나 그 때 그 아들은 칠일 동안 병 중에서 신음하다가 죽고 말았다. (삼하 12 : 15-23)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

금식을 할 때에는 허세를 부리거나 “슬픈 기색”을 내지 말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며... 너희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 (마 6 : 16-18 ; 니삼 13 : 16-18 참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금식할 때 먹고 마시는 것만을 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다른 것도 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전 7 : 5)

금식 기간에 관해서는 경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모세는 떡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 사십 주야를 금식했다고

전한다. (출 34 : 28) 예수님도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셨다. (마 4 : 2) 그밖에 다른 경우에 보면 금식한 기간이 나와 있지만 대개는 이틀이나 삼일로 국한된다. 경전에는 다만 사람이 자주 금식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음식 서너끼를 금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한번에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론

선지자 이사야는 금식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풀이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이기적인 마음과 독선적인 의로움을 목표로 해서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들의 금식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외면하고 계시며 자기들의 금식한 것에 대한 대답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선지자는 주님의 뜻을 대변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굽은 배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람될 날이라 하겠느냐”(이사야서 58 : 4-5)

그 다음 이사야는 금식의 바른 태

도가 어떠한 것이며 그 보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 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만 동산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서 58 : 6-11)

참으로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은 옳은 뜻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금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며 이는 기쁨의 원인이 된다. ㉔

어떤 스테이크 부장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한 회원 집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가 전화를 받았다. 스테이크 부장은 집에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어린 아이 대답인즉 “제 형제가 집에 있습니다.” “저, 그럼 그 형제를 바꿔주겠니” 한참만에 어린 아이가 다시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저 전화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다구쳐 물었다. “어째서 그렇지?” 그러자 전화 저쪽에 있는 어린 음성은 이런 대답을 했다. “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저의 형제를 얘기 칩대에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꺼내올 수가 없어요”

더글러스 시 벤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어떤 와드의 캠핑 책임자가 캠핑 도구를 사기 위해서 시장엘 갔다가 뒷면에 거울이 붙은 나침판을 발견했다. 그는 조금 의아한 눈으로 용도를 물었다. “저—” 상점에 있던 점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건 아주 편리한 거죠. 나침판을 보다가 그 뒤를 보면 말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를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메일 블랙팬 부인> 아이다호주 블랙프르시



허허 클새 코끼리는 한 쪽에 실지 말구 배 앞뒤로 실으라고
그랬잖아

<메일 킬본그림>
스텔라 콘더트, 반벤시, 캘리포니아

물문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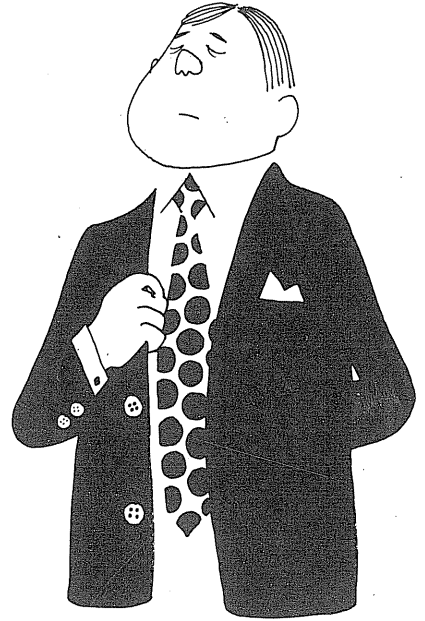
아주 역사적인 성찬식이었다. 스테이크 부장님은 집회 장소에 가득찬 회중 들에게 두 와드를 세 와드로 나누는 때 따른 새로운 와드 경계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여러번 되풀이 해서 경계선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서 세 감독단의 이름을 발표했다. 모임은 좀 길었지만 훌륭한 모임이었다. 그 모임의 중요성은 여섯살 먹은 아이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었다.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집 여섯살 짜리가 이렇게 물었다. “아빠 우리 그래도 아직 물문이지?”

<제이 게리 시스부인> 유타주 홀리메이시

미국 정부 농림성에서 실시하는 여론 조사를 하면서 한 학생이 자못 신랄한 눈초리로 농부를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농장에서는 감자 5톤 거두기도 힘들겠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이 밭은 말야 감자밭이 아니라 도마도 밭이니까 말일세”

<찰스 이 웨이드>
뉴 저지주 부른펠드시



한번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한 형제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막상 회중을 대하자 그는 그만 분위기에 압도되어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고 가슴이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에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형제가 지금 내려 간 자세로 단위에 올라 왔던들 그가 올라 오던 때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요”

조셉 엠 프레이크
아리조나 샌 칼로스

나는 주일학교 3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는 것에 관한 공과를 끝냈다.

아이들은 둥그렇게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에게 너는 할아버지께 무슨 선물을 드리겠느냐고 했더니 그 아이는 슬픈 낯으로 할아버지는 하늘 나라에 계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냐”고 다시 물었다. 그 아이는 “아뇨” “할머니는 유타에 계시요”라고 했다.

앤 우드랜드
아이다호주 아이다호웰스

주님의 신전

선교부장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요 의식은 성스러운 신전에서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그의 계명에 순종했는가를 바탕으로, 영생과 약속된 축복의 엔다우먼트를 받습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이생을 떠날 때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지식을 얻게 됩니다. 신전에서만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가 함께 영원히 인봉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신전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가족으로 인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에게는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따라서 신전 결혼을 준비하여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신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제보 기록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오로지 주님의 신전에서 집행되는 대리의식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젊은 회원이 비회원과 결혼하여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저욕이 실망하고는 합니다. 주님께서 한국에 신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께서는 한국 성도에게 신전을 갖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신전을 갖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전을 갖길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합당한 삶을 영위하여 신전을 갖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면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때 주님은 한국 성도에게 신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얻을 것이요, 이는 만민에게 주는 약속이며 땅 끝까지 거하는 자에게까지 주시는 약속이시니” (골몬서 9:21)

